

慶尙左水營營址圖形(慶尙道地圖 中 部分, 奎章閣 소장)



수영구 안내도



수영의 문화유적



좌수영성지 곰솔(천연기념물 제270호)



좌수영성지 푸조나무(천연기념물 제311호)



좌수영성 남문(시지정유형문화재 제17호)



자수책거리병풍(시지정유형문화재 제74호)



좌수영성지(시지정 기념물 제8호)



25의용단(시지정 기념물 제2호)



정과정 유적지(시지정 기념물 제54호)



마애지장보살좌상(시지정문화재자료 제7호)



안용복장군 사당



옥련선원(전통사찰지정 제28호)



영주암(전통사찰지정 제8호)



임진왜란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



장대골순교지



백산점이대



박인로가사비



송씨 할매당

수영의 무형문화재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좌수영여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농청놀이(시지정무형문화재 제2호)



수영지산밧기(시지정무형문화재 제22호)



수영의 문화시설



수영민속예술관



수영사적원



수영구 도서관



야외상설무대



수영구문화센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KBS부산방송총국



MBC부산방송국

수영의 문화유적



정과정유적지(시비)



정과정유적지(전경)



좌수사 선정비



최영장군사당(무민사)



선소유허비



최한복기념비



수영성 남문 터



수영성 장대 터

수영의 관광명소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수영사적공원



남천·민락횃촌



금련산



수영강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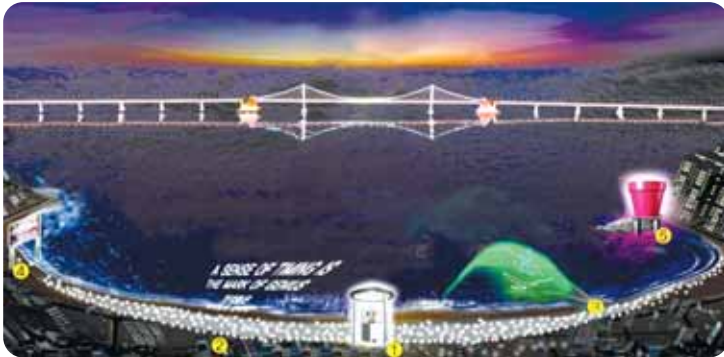


해양레포츠센터



민락수변공원

수영의 관광명소



바다빛미술관

백 남 준
Baek Nam Jun



① 디지털아트 Digitation

제니홀처
Jenny HOLZER



② 빛의 매세지 For Busan

심문섭
Sim Mun Seop



③ 섬으로 가는 길 Road to Island

샤를 드 모
Charles de MEAUX



④ 영상 인터랙티브 Interactive

장 피에르 레노
Jean-Pierre RAYNAUD



⑤ 생명의 원천 Le pot

안 카슬레
Yann KERSALÉ



⑥ 은하수 바다 Equime

수영의 축제



광안리어방축제(그물끌기)



수영전등달집놀이



수영전통민속예술제



아식김치축제



광대연극제



부산바다축제



부산불꽃축제



차없는 문화의 거리

수영의 어제와 오늘



1950년대의 광안·남천지구



현재의 광안·남천지구



1960년대의 광안·수영지구



현재의 광안·수영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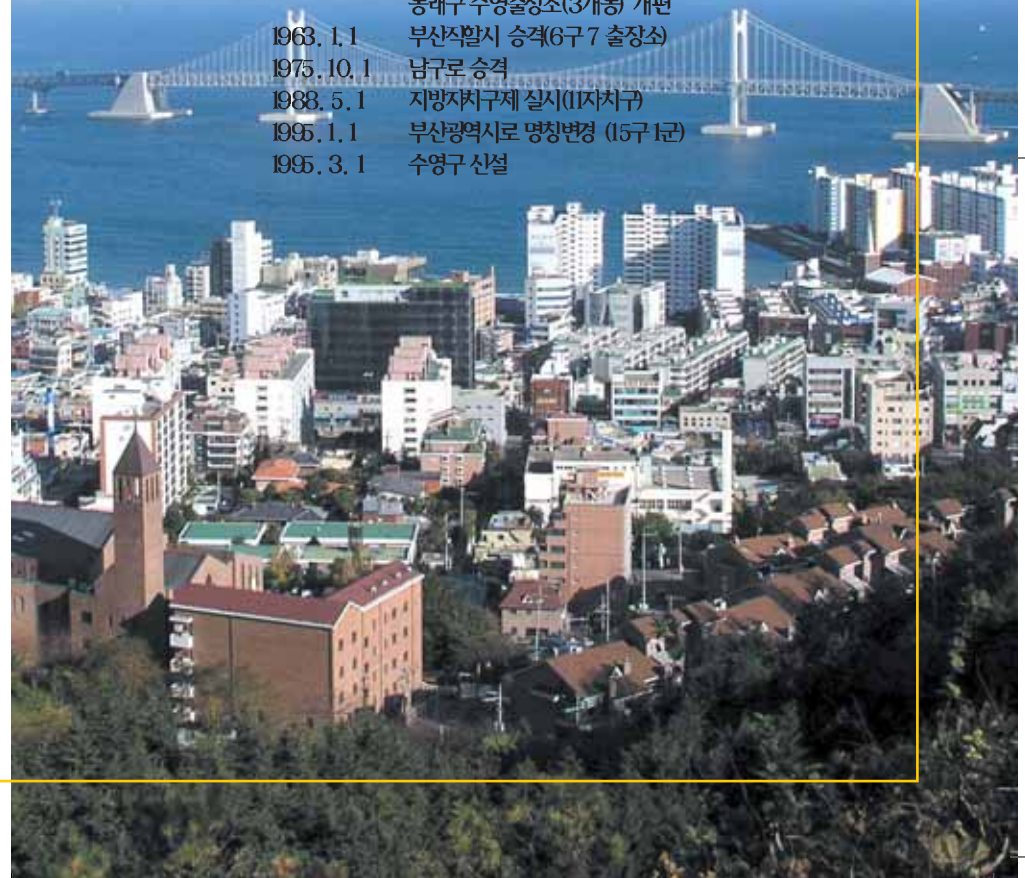
1960년대의 광안·민락지구



현재의 광안·민락지구

수영의 연혁

삼한시대	진한 소국의 영역에 속함
삼국시대	신라의 거칠산군에 속함
통일신라시대	동래군에 속함 (경덕왕 때 명칭 바꿈)
고려시대	동래현에 속함 (현종 연간에 일시적으로 울주에속함)
조선시대	동래부 남촌면에 속함 (명종 때 동래부로 승격)
1914.	동래군에 속함
1936. 4. 1	부산부 행정구역확장 부산진출장소
1942. 10. 1	동래군 수영과 해운대일부 부산부 편입 (수영출장소 설치)
1949. 8. 15	부제폐지 부산시로 개칭
1953. 9. 10	부산시 대연출장소 설치
1957. 1. 1	구제일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6개 동)와 동래구 수영출장소(3개동) 개편
1963. 1. 1	부산직할시 승격(6구 7 출장소)
1975. 10. 1	남구로 승격
1988. 5. 1	지방자치구제 실시(11자치구)
1995. 1. 1	부산광역시로 명칭변경 (15구 1군)
1995. 3. 1	수영구 신설



차례

제1 편 수영구 변천사

1. 선사시대	18
2. 삼한시대	19
3. 삼국시대	19
4. 통일신라시대	20
5. 고려시대	20
6. 조선시대	21
7. 일제강점기	23
8. 해방 이후	23
9. 수영구 탄생	24

제2 편 동의유래 및 수영의 인물

1. 동의 유래	26
2. 수영의 인물	35

제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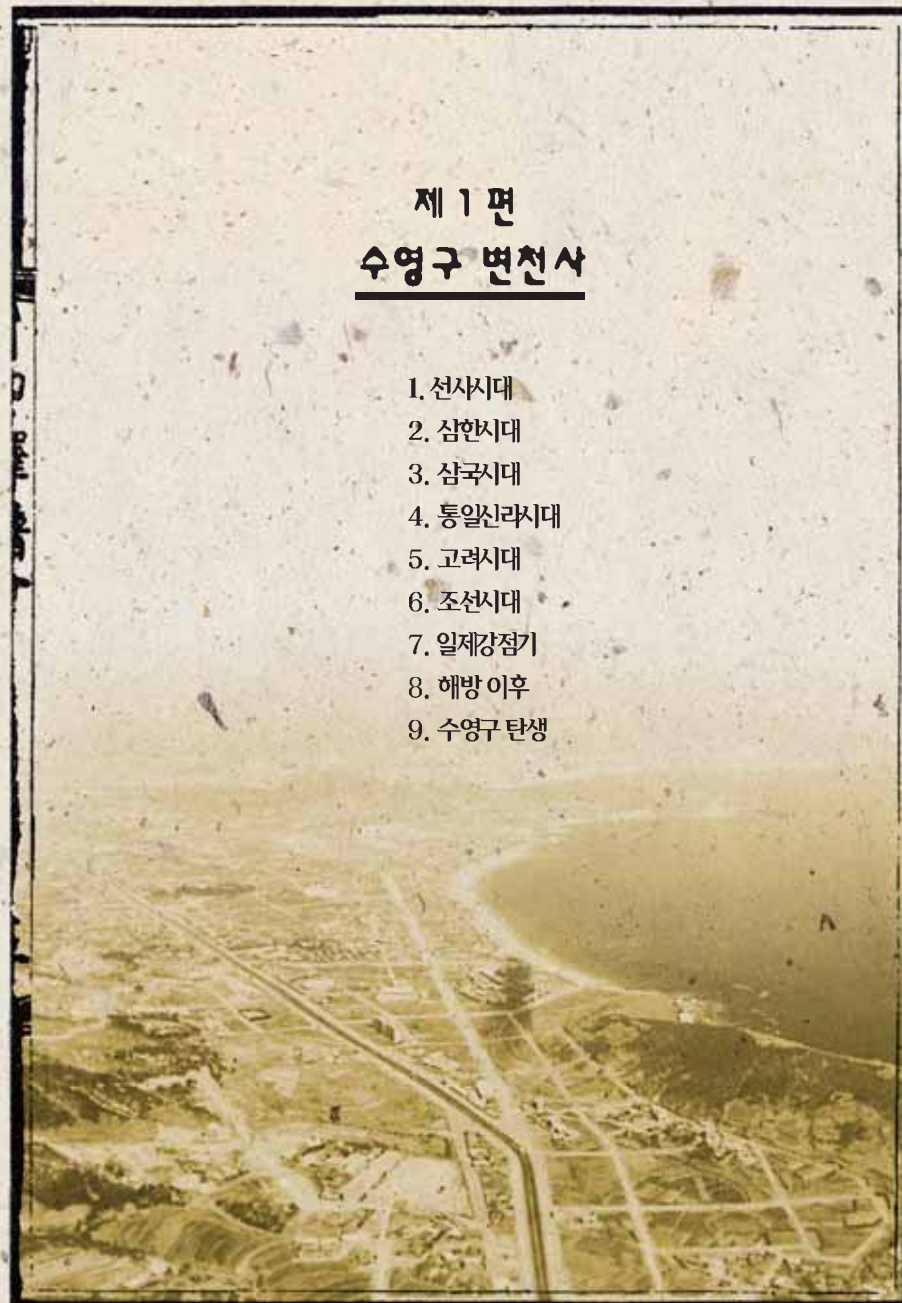
1. 보물	38
2. 천연기념물	39
3. 유형문화재	41
4. 무형문화재	44
5. 기념물	49
6. 문화재자료	55
7. 기타유적	56
8. 명승지	68
9.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	80

부 록

1. 수영사적 자료	83
2. 수영의 문화시설	87
3. 수영자랑 II 가지	90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95

제 1 편 수영구 변천사

1. 선사시대
2. 삼한시대
3. 삼국시대
4. 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7. 일제강점기
8. 해방 이후
9. 수영구 탄생



제1편 수영구 변천사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수영구의 역사는 부산(동래)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동래) 속의 수영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두고 수영의 연혁과 행정구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선사시대

한반도에 인류가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 부터로 수영구에서 멀리 않은 해운대 신시가지와 청사포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 후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미숙한 단계이지만 농경생활의 시작과 정착생활이 확대되면서 정치집단의 등장으로 사회의 모습이 변모하여 갔다.

특히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지금의 부산시가지의 큰 틀이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있었음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 시기에 부산(동래) 수영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금의 수영강 유역에서 청동기 유물(좌수영 출토 마제석검 - B.C.3세기)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2,000여년 전부터 고대인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삼한시대

삼한시대(A.D 1세기~3세기경)의 부산(동래)은 철기가 보급된 시기로 씨 철제 농기구를 이용한 농작물 생산, 철기의 국내외 무역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재부를 축적하고 철제무기를 통한 정복전쟁으로 정치적인 지배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3세기경에 편찬된 중국 사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한전, 변진전에 그 당시 삼한인들의 생활과 사회상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이 삼한 중 지금의 부산(동래)과 김해 일대 즉 가야는 변진에 소속되어 있고 변진에 올라 있는 24국 중 부산(동래)은 독로국에 속해 있었다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진한 영역에 속해 있었다.

3.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부산(동래)은 신라의 거칠산국·군에 편제되었으나 문화적으로는 가야문화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이후 신라가 가야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부산(동래)지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신라의 거칠산군에 속해 있었다.

4. 통일신라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8세기 중엽 경덕왕 시대에 이르러 종래의 고유한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개정함에 따라 거칠산군도 동래군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부산지역의 명칭을 동래라 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동래군에 속해 있었다.

5. 고려시대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이르는 시기는 중앙통치력의 약화를 틈타서 지방호족 세력의 활동이 극심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그들 중에서도 후삼국의 맹주로 등장한 견훤과 왕건은 서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다. 그 결과 최후의 승리자가 된 왕건은 혼란한 지방 통치력 회복을 위하여 강압과 회유의 양면책을 적절히 시행하면서 중앙집권력 강화의 기초를 닦았고, 성종 때에는 지방의 중요 지점에 외관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 구조는 제8대 현종 연간을 통하여 기본 골격이 구축되고, 이 때 동래군을 현으로 격하하여 일시적으로 울주(蔚州)에 소속시키고, 그 속현이었던 동평현은 양주(楊州)에 소속시켰다가 곧 환원 되었다. 대체로 이 시기에 지방 군현의 변경은 정치적 성향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인종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한 것은 당시 동래 정씨와 고려 왕실과의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고 정서가 모함을 받아 귀향형을 당하여 수영강변에 정자를 짓고 정과정곡을 지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실상을 입증함은 물론 국문학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심하여짐에 따라 부산(동래)지방은 국방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사》에 보면 충정왕 2년(1350), 공민왕 10년(1361), 우왕 2년(1376)에는 동래, 우왕 2년 12월에는 동평현에 각각 왜구가 침범하여 동남 연안 지역에 대규모의 피해를 입힌 내용이 전한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동래현에 속해 있었다.

6.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부산(동래)은 계속되는 왜구의 약탈 행위가 더욱 심각한 사태로 대두되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에 좌수영성, 부산진성, 봉수대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었으며, 이후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 시기의 수영구는 동래부 남촌면에 속해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동해쪽의 해상방어를 담당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으로, 경상좌도의 수군 진영은 모두 수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

임진왜란 때 관군의 패배와는 달리 수영민들의 충절과 기백을 보여준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수영 25의용사에 모셔져 있다.

이들은 경상좌수사 박홍이 성을 적에게 내 맡긴 채 도망하자, 진장도 지휘관도 없는 위급한 때를 당하여 오로지 죽음을 맹세하고 충의심을 발휘하여 적과 싸우다가 몸을 바쳐 죽어간 좌수영 소속의 수군과 성민 25명으로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 고장의 선열들이다.



7. 일제강점기

수영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동래군에 소속되었다. 1986년 4월 1일에 동래군 용주면과 남면 일부가 부산부로 편입되면서, 부산진출장소(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우암동, 감만동) 소속으로 되었다.

1942년 10월 1일에 동래군의 수영과 해운대의 일부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수영출장소(수영동, 광안동, 민락동)가 설치되었다.

8. 해방 이후

1949년 8월 15일에 부(府)제가 폐지되고 시(市)제가 실시되면서 수영구는 부산시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1953년 9월 10일에는 부산시 대연출장소(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남천동) 소속이 되었다.

1957년 1월 1일에는 구(區)제의 실시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와 동래구 수영출장소로 개편되었다가 1973년 3월 10일에 그 당시 구 승격 직전의 관할구역을 대부분 포함하는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로 승격하였다.

9. 수영구 탄생

1975년 10월 1일에 남구로 승격하였고, 1988년 5월 1일에는 지방자치구제(11자치구)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에는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15구 1군)되고, 동년 3월 1일에 남구와 분구(分區)되어 수영구가 신설되었다.

제 2 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1. 동의 유래

- 가. 남천동
- 나. 수영동
- 다. 망미동
- 라. 광안동
- 마. 민락동

2. 수영의 인물

- 가. 박종질
- 나. 박 흥
- 다. 변봉금
- 라. 안용복
- 마. 25의용
- 바. 정 서
- 사. 최한복

제 2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1. 동의 유래

가. 남천동(南川洞)

1) 역 사

○ 고로(古老)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약 400년 전이었다고 한다. 남천동의 역사가 오래된 한 증거로는 마을 뒷산인 금련산 기슭의 가



〈1970년대 남천동 주변〉

장골에 언제부터 있어왔는지 모르지만 동제당이 있다. 남천동은 대연동과 남천동의 경계지점인 황령산과 금련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수영만 바다(광안리 해변)로 흘러드는 3,280m의 남천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에는 남천동과 대연동 사이의 모든 해안을 통칭하여 남천만이라 한 것으로 보아 남천이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40년에는 동래부 남촌면 남천리 였으나 1914년 4월 1일 동래군 용주면 남천리,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남천동, 1953년 9월 10일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 남천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 1983년 10월 1일 남천동이 1·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2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 유래

○ 중골산 : 지금의 삼익 아파트 자리에는 예전에 야산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형상이 죽은 용의 형상이라 하여 ‘죽은골산’ 혹은 ‘중골산’이라 불렀다.

수영 역사 문화 탐방

- 남칭이 : 옛 사람들은 남천동을 남천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남칭이’라 불렀다.
- 범바우들 : 옛날 남천동의 가운데 있는 들판을 ‘범바우들’이라 불렀는데, 이는 남천동 산자락에 범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불렀다고 한다.
- 흠대거렁 : 옛 사람들은 남천을 흠대거렁이라고도 불렀다. 골짜기에서 맑은 시냇물이 흠을 타고 흘러 내리듯 빠르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가장골 : 남천동의 뒷산 골짜기를 가장골이라 불렀다.
- 자연마을 : 남천리, 대리마을, 사패마을, 삼패마을, 이패마을, 일패마을 등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 《동래부지》《대동중첩분과각동도록》 등에 기록이 나온다.

나. 수영동(水營洞)

1) 역 사

○ 수영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생겨서 사람이 살아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고려 현종 12년(1021)에 동래군의 군치소(郡治所)를 지금의 수영에서 동래읍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영동은 조선시대에 동래부 남촌면에 속해 있었는데, 이 남촌면 중에도 동부리, 서부리, 북문외리, 남문외리가 오늘날의 수영동에 해당된다. 수영동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



〈1950년대 수영동 주변〉

제2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었으므로, 수군에서 ‘수(水)’자와 절도사영에서 ‘영(營)’자를 따와서 수영이라 한 데서 동명이 생겨났다.

수영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3년 3월 10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 수영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남 수 : 수영동을 일제강점기에는 남수리(南壽里)라고도 했다.

○ 좌수영장 :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5일장으로 동래읍내장, 좌수영장, 부산장, 독지장, 허단장이 있었다.

좌수영 앞에 열렸던 좌수영장은 1876년 이후 자료에는 5일과 10일장으로 되어있다. 현재의 수영팔도시장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다. 망미동(望美洞)

1) 역 사

○ 망미동은 삼국시대에는 거칠산군이었는데 현재의 망미1동 부산지방 병부청이 그 중심지였으며 성곽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의 지명은 조선시대에는 동래부 남촌이었으나 한말에는 동래부 남상면으로 개칭되었으며, 일제에 병합된 후 동래군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일제 때 망미동은 동래군 남면 남수리(南壽里)라 하고, 송정리(崇亭里)는 망미리(望美里)라 했다. 망미리라 이름하게 된 유래는 고려시대 충신 정서(鄭澈)가 이곳에서(지금의 망미2동 수영천) 귀양살이를 하면서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북쪽을 바라보며(望) 임금(美)을 향하여 절을 했다는 뜻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에서 생겼다는 말도 있고, 망미동 망산(望山)의 망(望)자와 배미산(盃美山)의 미(美)자를 합쳐서 되었다는 말도 있다.

망미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79년 1월 1일 수영동에서 분리되어 망미동으로 독립, 1982년 9월 1일 망미1·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2동이 되었다.



〈1950년대 수영강 주변〉

2) 마을 이름의 유래

○ 구락리(龜樂里) : 망미2동의 수영강변에 옛날에는 흰 모래가 많았는데, 이곳에 흰 갈매기가 많이 날아와 놀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도 있고, 이곳이 빨이었는데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렇다는 말도 있다.

○ 오옹건니 : 정서(鄭絳)가 정과정 모래톱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건너편 해운대 쪽의 들녘에 참외와 오이를 가꾸며 지냈는데, 오이 할아버지가 건너다니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 말도 있고, 이곳에서 용두갑까지 정서를 나룻배로 건네준 노어부가 있었는데 성씨가 오씨였으며, 오옹이 나룻배로 건네 주었다고 하여 이 나룻터를 오옹건니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지금의 망미2동 4~7번지 일원으로 1985년도에 토향회(土鄉會)에서 화강암으로 된 시비를 세워 놓았다.

○ 조치막(調治幕) : 망미1동 815번지 자리를 말하는데, 옛날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장소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니골(調泥谷)이라고도 한다.

제2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 옥성골(獄城谷) : 망미1동 445번지, 지금의 부산지방병무청의 북편인데, 옛날에 이곳에 옥사(獄舍)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양골(혹은 시양골) : 망미1동 537번지, 옛날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다고 서당골이라 한 것이 음이 변전하여 새양골 혹은 시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톳고개 : 배산의 동쪽에 있었던 고개로 지금의 연산동 망미 주공아파트 앞길에 이에 해당된다.

톳고개의 이름은 배산 동쪽 기슭 입구 남쪽으로 향한 오목한 자리에 토곡마을이 있었다. 그 '토곡'으로 해서 '토곡고개'라 한것이 줄어들어 '톳고개'가 되고 '톳고개'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토현(土峴)'이 된 것이다.

라. 광안동(廣安洞)

1) 역 사

○ 광안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이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문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8·15해방 전에는 수영로 윗쪽을 윗각단(윗 뜰), 아래쪽을 아래각단(아래 뜰)이라 불렀고, 남천동쪽을 옛날부터 범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다고 하여 범바위(虎岩)라 불려 왔다.

광안(廣安)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현재의 광안리 해수욕장인 남촌(南村) 앞 사장(沙場)을 남장(南場)이라 했는데, 그 남장에는 넓은(廣) 모래 언덕(岸)이 있어 廣岸이라 썼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으로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광안동은 1740년(영조 16년) 동래부 남촌면 축산동에서 1903년(광무 7년) 동래부 남상면 광안리, 1910년 동래부 남면 광안리,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리, 1946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

수영 역사 문화 탐방

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광안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광안 1·2동 분동, 1979년 8월 8일 광안 1동이 광안 1·3동으로 분동, 1982년 9월 1일 광안 2동이 2·4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1·2·3·4동이 되었다.



〈1950년대 광안동 주변〉

2) 마을 이름의 유래

- 범바위 : 광안 4동의 베네딕트 수녀원 근처에 범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대굴 : 장대란 적의 침략을 살피는 군사시설의 하나였고, 조선시대 수영중학교 뒷편에 장대(將臺)가 있었다. 이곳에서 매년 10월 1일 좌수영 수사가 무사들의 무예를 시험했던 곳이라 한다.
- 어구정(禦寇亭) : 현 광안동 842번지에 어구정이란 정자가 있었다. 이곳은 수영무사들의 궁술 훈련장이었다.
- 칠포영(漆浦營) : 지금의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 임진왜란 직후에 수군이 주둔했던 칠포영이 있었는데, 무관 중4품의 만호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을 흥해에서 옮겨와서 광안리 일대의 바다를 방위토록 했다.

마. 민락동(民樂洞)

1) 역 사

- 민락동에 언제부터 마을을 이루어 사람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백산 북쪽의 '보리전



〈1950년대 민락동 분동〉

제 2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포이진-包伊鎭) 마을과 백산 남쪽의 '넬구지(넬곶이-板串里) 마을은 약 300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한다.

일제 때는 넬구지 마을을 평민동(平民洞)이라 했고, 보리전 마을을 덕민동(德民洞)이라 했는데, 이 두 마을을 합쳐서 민락동이라 불렀다.

민락(民樂)은 여민동락(與民同樂),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준말로서 임금의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 있다. 마을 고로(古老)들에 의하면 민락동의 유래는 수영 수사(水使)가 수졸(水卒)을 호령할 때 진산(鎭山-진조말산)에서 군악(軍樂)을 연주해서 그렇다고 하나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민락동은 8·15해방 전까지만 해도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약간의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던 50여 가구의 어촌이었으나, 1926년도에 시작된 중앙 부두 조성에 따라 중앙 부두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이곳에 옮겨와서 살게 되고, 1969년도에 완공된 신부산 구획정리사업으로 넬구지에 56,100㎡(17,000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태창목재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민락동이 현대 산업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민락동은 1740년(영조 16)에 동래부 남촌면 감포리에 소속되어 있다가 1914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민동(넬구지)과 덕민동(보리전)을 합하여 민락동이 되었고, 1936년 4월 1일 부산부 부산진출장소에 소속되었다가 1941년 3월 1일 동래군 용주면에 소속되었다.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민락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민락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넬구지 : 지금의 민락초등학교 동편 민락교 부근을 넬구지라 했다. 넬

수영 역사 문화 탐방

구지는 판곶(板串)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주변이 편편하게 넓은 터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보리전 : 지금의 수영교 근방을 보리전이라 하며, 이곳이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의 포이진(包伊鎭)이 있던 곳이다. 보리전이라 부르게 된 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포이진의 음이 변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에 범법자가 곤장을 맞기 위하여 보리 양식을 매고 와서 기다리는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광기전(廣器塵) : 각종 그릇 종류와 목물류를 팔고 사는 시장이 형성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산(白山) : 민락동의 주산으로 백산 꼭대기를 백자대(白紫臺)로 부르기도 했다. 백산이라 부르게 된 데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수영강의 안개가 이 산을 하얗게 덮고 있어서 붙여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영교 부근이 옛날에는 갈대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학들이 날아와 백산에 놀곤해서 백학산(白鶴山), 백산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백산의 모습이 수영을 두고 바다를 향해 달아나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수영아류(무형문화재 제43호)의 제4과장에서는 담비(범호랑이)를 사자의 먹이로 주며 달래고 있다.

○ 포이포(包伊浦) : 원래 울산의 장기에 있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동래군 남촌(수영)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의 수영교 근방이라 보고 있다.

○ 칠포리(漆浦里) : 원래 경북 홍해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산포로 옮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 서남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감포(甘浦) : 원래 경주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산포로

제2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옮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동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진조암(眞潮岩) : 민락동 남단 진조말산에 있는 자연석 바위이다. 조선시대 그 해의 첫 어로작업이 시작 되던 날, 수영 수사(水使)가 이곳에 나와 의자처럼 생긴 바위에 앉아 어부와 수군들을 격려하였다고 하며, 이곳은 수영강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고기가 많이 잡힌 곳으로 유명하다.

○ 점이대(覲夷臺) : 일명 '참이대' 라고 하며 조선시대 이곳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가 있었던 곳이다. 수영강 하구의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수영교 완공(1977. 11. 12)〉



〈수영교 개통(2007. 12. 10)〉

2. 수영의 인물

가. 박중질(朴仲質) : 고려말의 무관으로서 동래 현령을 하다가 나중에 수영지역의 염장관(소금을 만드는 염장의 관리)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계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켜, 최영장군이 죽음을 당하자 그의 막하 장수였던 박중질은 수영의 염부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삼족이 멸하는 화를 입었다고 한다. 수영지역에 모셔진 최영장군 사당에 그의 넋이 함께 있다고 보고 기려왔다고 하나 정확한 문헌적 연구가 된 것은 아니다.

나. 박 홍(朴 泓, 1534-1593) :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字)는 청원(淸源)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1556년(명종 11)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경상좌수사로 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겁을 먹고 수영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갔던 관계로 역사에는 출장(出將)으로 남아 있다.

다. 변봉금(卞鳳今, 1880-1958) : 일제 강점기(日帝強占期)에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부부 항일투사(夫婦抗日戰士)로서 그의 남편은 최상운(崔尙雲)이다. 변봉금은 부산진 좌천동에서 조선조말 부산첨사 밑에서 부장을 지낸 변광지(卞光之)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19세에 30세 노총각인 최상운과 결혼하여 서울(연지동), 만주, 부산 수영 등지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수영에서는 당시 많은 독립투사들이 변봉금의 집에 피신해서 숨어 살고 있었다.

라. 안용복(安龍福) : 좌수영 수군의 능로군(능 짓는 병사)에 속해 있던 군졸로서 1693년(숙종 19)과 1696년(숙종 22)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한 왜인들을 몰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약 받아온 사람이다. 후세 사람들에 의해 장군으로 봉해졌으며, 그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다.

마. 25의용(義勇) : 25의용이란 임진왜란 때 경상좌수사 박홍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자 이 곳 수군과 성민 등 25인이 7년 동안 왜군과 맞서 싸운 향토 의병결사대를 말하는데, 25의용의 넋을 모셔놓은 25의용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다.

▶ 25義勇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水營 25義勇 諸人 (無順)

김옥계(金玉戒), 정인강(鄭仁疆), 최송엽(崔松葉), 최수만(崔守萬), 박지수(朴枝樹), 김팽량(金彭良), 박응복(朴應福), 심 남(沈 男), 이은춘(李銀春), 정수원(鄭壽元), 박 림(朴 林), 신 복(辛 福), 이 수(李 壽), 이희복(李希福), 최한연(崔汗連), 최한손(崔汗孫), 최막내(崔莫乃), 최말량(崔耑良), 김달망(金達亡), 김덕봉(金德奉), 이실정(李實貞), 김허봉(金許弄), 주난금(朱難金), 김종수(金從守), 김진옥(金進玉)

바. 정 서(鄭敍, 호는 과정 瓜亭) : 고려 의종(毅宗) 때 충신으로 억울하게 역모죄로 몰려 동래로 귀양을 와서 지금의 수영구 망미2동 4-7번지 인근의 수영천변에서 오이를 기르며 살았다. 그가 임금을 그리며 지은 유명한 가사인 정과정곡은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수영천변 정과정유적지에 그를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정과정 시바〉

내 님물 그리수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이숫호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돌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루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훈디 녀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몰히마리신더
술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흥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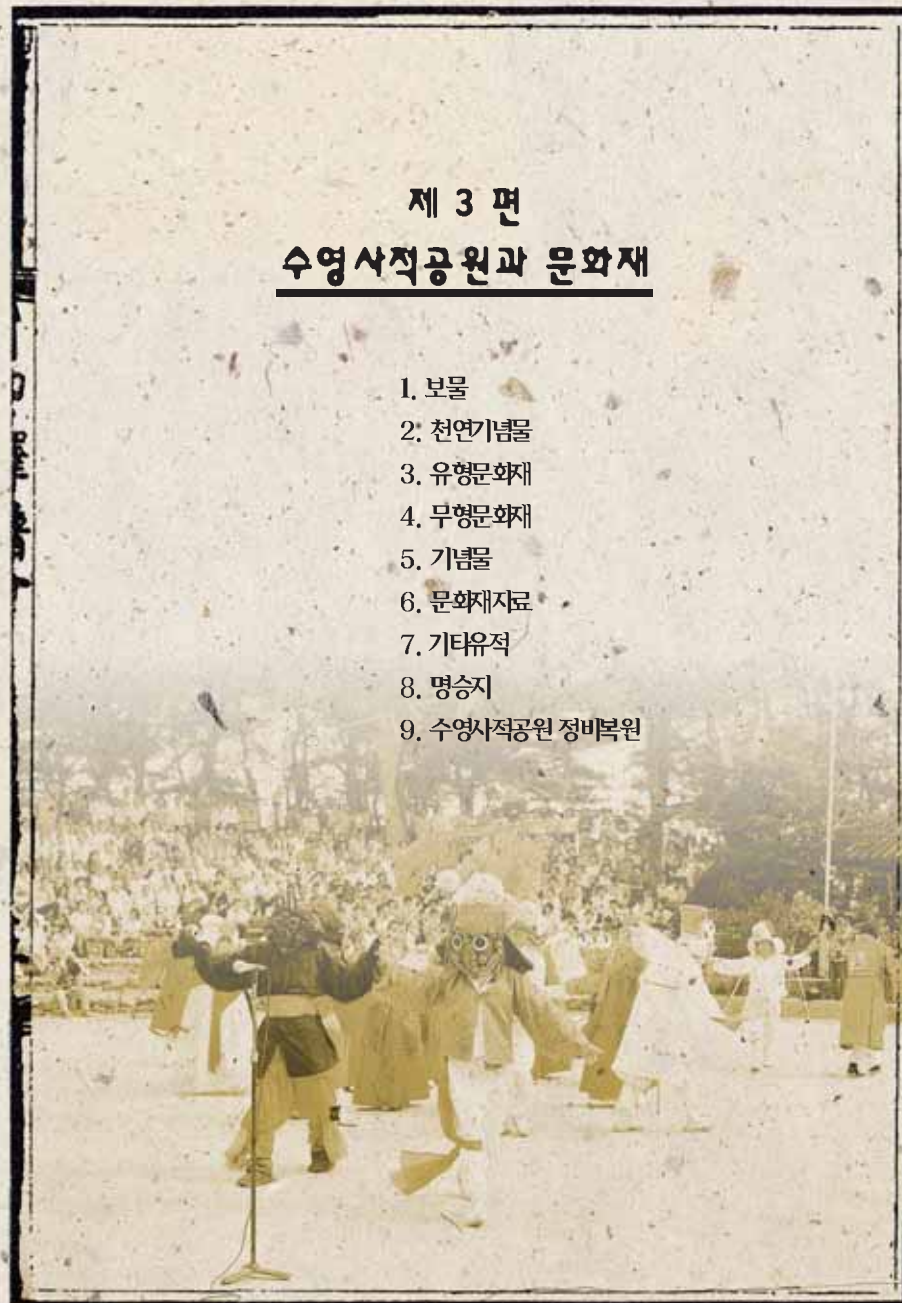
(樂學軌範 卷五에서)

사. 최한복(崔漢福 1895-1968) : 수영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보성(普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을 초등학교 교사로서 향리의 후진들을 교육했다. 말년에는 고등공민학교를 몸소 세워 가난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일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25의용단 제향의 맥을 잇기 위하여 몸소 집례를 주관하여 야간에 제를 올리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을 쏟아 '수영아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후세에 수영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정리에 힘을 쏟기도 하였으며, '수영팔경'을 발굴하여 국문학지에 알리는 등 수영지방을 위해 노력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이다.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보물
2. 천연기념물
3. 유형문화재
4. 무형문화재
5. 기념물
6. 문화재자료
7. 기타유적
8. 명승지
9.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



제3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보물

□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七 迦理迦尊者))

○ 지 정 : 보물 제1882-1호(2016.01.07.)

○ 소재지 : 부산수영구(소유자 : 현승훈)

○ 내 용 :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제7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의자에 앉아 고요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를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는데,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도상적 특징이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인데, 필



〈고려 십육나한도〉

선과 색채, 표현방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 丙申年은 1236년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동량(棟梁) 김의인(金義仁) 등 무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적 위기의 상황으로, 국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제15 아별다존자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제작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 천연기념물

가. 부산좌수영성지 곰솔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270호(1982. 11. 9)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입구인 수영성 남문에서 10m 떨어진 곳의 보호절책 울타리 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400년 이상된 해송 종류의 오래된 나무로서, 좌수영성 수군(水軍)의 군신목(軍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27m, 나무 둘레는 4.5m, 수관의 폭은 23.5m 정도이다. 옛날 좌수영이 이곳에 진영을 갖추어 군선을 제조할 때면 이 나무에 목신(木神)이 있어 제조한 군선을 보호한다고 믿어 이 나무에 군사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부산좌수영성지 곰솔〉

수영 역사 문화 탐방

나. 부산좌수영성지 푸조나무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311호(1982. 11. 9)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남문에서 서쪽으로 약 50m정도 떨어진 보호 철책 율타리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500년 이상된 느릅나무과의 오래된 나무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지신목(地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17.2m, 수관의 폭은 24m정도이다. 푸조나무에서 40m 떨어진 자리에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수영 고당(송씨할매당)이 있어 해마다 정월보름이면 한해의 무사안녕을 비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수영야류를 연희했다고 한다. 이 푸조나무에는 송씨할매의 닢이 깃들어 있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2. 유형문화재

가. 수영성 남문(水營城 南門)

- 지 정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조선시대 경상좌수사영성(慶尙左水使營城)의 주문인 남문으로서 현재는 수영사적공원 입구에 보존되어 있다.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문)만 남아 보존되고 있다. 그 양측에 돌로 새겨진 박견(狎犬)이 석주(石柱) 위에 놓여져 있다. 이 남문은 원래 수영동 286-1번지의 좌수영성의 남문으로 있었으나, 한때 수영 팔도시장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쪽으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현재의 수영사적공원 동쪽 입구로 다시 옮겨졌다.



〈수영성 남문〉

나. 자수책거리병풍(刺繡冊巨里屏風)

- 지 정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4호(2006.11.25)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15번길 12
- 내 용 : 작품연대는 19세기(조선시대말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8폭 병풍으로 기물들의 묘사가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이며 형태가 정확하고 반듯할 뿐 아니라, 명암법·투시도법이 적용되었고, 색채도 강렬한 원색보다 고아하고 은은한 톤이 주조를 이루는 점을 감안해 볼때 수준 높은 도화서 화원이 밑그림을 그리고 궁중의 수방(繡房)에서 궁수(宮繡)를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묘사된 내용으로 보아 흥문관, 독서당, 규장각 등 궁궐의 입직소에서 사용하였거나 내사품으로 양반의 사랑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위탁관리중이다.



〈자수책거리병풍〉

다. 황련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黃蓮寺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

- 지 정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27호 지정(2013.5.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7번 나길 25 황련사
- 수 량 : 6권2책(목판본)
- 관리단체 : 황련사
- 내 용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줄여서 『대방광원각경』, 『원각수다라요의경』, 『원각요의경』, 『원각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체 중생의 본래성불(本來成佛)을 드러내는 ‘원각(원만한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뛰어난 경전이라는 뜻이 된다.

황련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목판본으로 1588년(선조 21) 정도 운문사서 개판한 것이다. 6권 2책의 완본으로 책1에는 변상도(變相圖), 서(序), 권1~4, 시주질이, 책2에는 권5, 6과 시주질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황지홍사(黃紙紅絲)에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線裝)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드물게 변상도가 있는 판본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24종의 판종 중 변상도가 있는 판본은 황련사 소장 판본과 훨씬 후대인 1861년(철종 1)의 건봉사본(乾鳳寺本), 그리고 1883년(고종 20)의 봉인사본(奉印寺本) 뿐이다.

칠곡 송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한 판본이 복장 전적 일괄 유물로 경상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6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경판이 아직도 운문사에 장판되어 있다. 간행에 관련한 기록도 풍부하여 조선 전기 불교 판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3. 무형문화재

가. 수영야류(水營野遊)

- 지 정 :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1971. 2. 2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야류는 약 250여년 전부터 수영지역에 연희되어 오던 탈놀음으로서 초계 밤마리 장터(현 경남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에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수영지역의 서민들이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던 이 탈놀음은 준비과정과 길놀이와 군무, 탈놀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 사자무과장 등 4과장으로 연희된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사람 전체가 모여 함께 즐기던 마을축제의 한 형태이다.



〈수영야류〉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나.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지 정 : 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1978. 4. 1)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좌수영(左水營)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의 준말로 수영(水營)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 하였다. 수영은 연안 어업이 성하여 어업 협업체로 어방(漁坊)이 형성되었다. 어방놀이는 이 어방을 중심으로 멸치잡이와 고기잡이 교육을 하던 것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놀이이다. 후릿그물을 만들면서 부르던 내왕소리,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 당기면서 부르던 사리소리, 잡은고기를 퍼내어 소가래로 운반하며 부르던 가래소리, 모든 작업을 마치고 풍어를 자축하며 부르던 칭칭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만 일원에서 멸치잡이 할 때 부르던 노래가 불려지며 매년 여름 해수욕철이



〈좌수영어방놀이〉

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다.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1972.2.1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던 곳으로서 수영성 남·북문 주변에는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농사 협업체인 농청이 형성되어 1960년 대까지 남아 있었다.

농청은 성인 남녀로서 구성되는데, 현재에 재현되고 있는 농청놀이는 한 해의 농삿일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서 모심기 노래 등 벼농사와 관련된 농요가 함께 불려진다.



〈수영농청놀이〉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김매기노래, 보리타작소리 등이 있다.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라. 수영지신밧기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2014.1.1)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지신밧기는 250여 년의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며 마을의 태평과 주민들의 재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 야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참여 인원은 약사 30명, 잡색 21명이며, 당산풀이, 우물풀이, 인사굿, 마당밧기,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독풀이, 곡간풀이, 정낭풀이, 삼작풀이, 판놀이, 기소각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락은 단아하면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수영차신밧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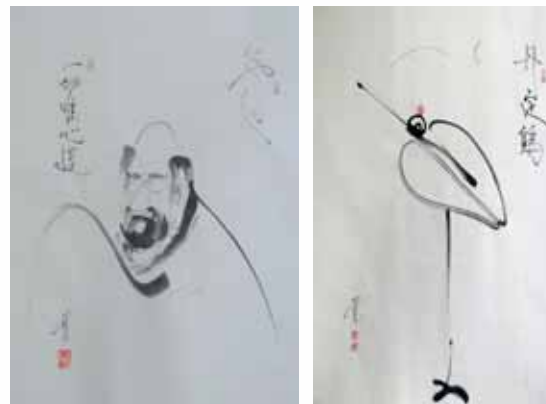
서도 깊이가 있으며, 소리도 타 지역에 비해 시김새가 적어 깨끗한 경상도 메나리조의 소리 길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 선화(禪畵)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 (2013.5.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민락수변로 9-1 원각선원
- 내 용 : 선화를 그리는 세 가지 장점으로 선(禪), 근(根), 혜(慧)가 있어야 된다 또한 선화 제작 도구의 성질, 내용 및 사용 방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불교적 교리에 입각한 선승의 자세, 참선과 수행을 통해 선화의 준비과정을 거치는 등 전통적인 禪風에 입각한 작품 활동이다.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4. 기념물

가. 좌수영성지(左水營城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일원
- 내 용 : 원래 경상좌수영은 감만이포(戡蠻夷浦, 남구 감만동)에 있었으나 태종 때 울산 개운포(開雲浦)로 옮겼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 남촌(수영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636년(인조 13) 사천(絲川, 수영천)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아 다시 감만이포로 옮겼으나, 감만이포는 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하여 1652년(효종 3)에 또 다시 옛 터인 수영으로 옮겨 1894년(고종 31) 군계개혁으로 수영이 혁파되기까지 243년간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

경상좌수영에는 부관 정3품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약칭 경상좌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조선시대 일종의 해군 지인 좌수영(左水營)이 1895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즈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좌수사(左水使)와 그 관리들〉

수사)가 주재하고 그 관하에는 1개의 첨사영(僉使營)이 있었으며, 경상좌도의 바다를 방어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현존하는 좌수영성이 언제 처음 축조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허화되고 그 후 1652년 감만이포에서 남촌 구기로 다시 이건(移建)되면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좌수영은 石城으로, 규모는 둘레 1,193보, 9,190여척, 높이는 13~16척 정도이고, 웅성이 3곳, 치성이 6~7곳이며 여장(女牆)은 375~384이며 4대문이 있었다.



〈좌수영성지〉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1998년 발굴당시 수영성 서문지 치성 주변 모습〉

동문을 영일문(迎日門), 서문을 호소문(虎廟門), 남문을 주작문(朱雀門), 북문을 공진문(拱辰門)이라 하였고, 이들 성문에는 각기 문루가 있었다.

성문은 일정한 시각에 폐문루(閉門樓)와 관해루(觀海樓)에 달아 둔 북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열고 닫았다.

좌수영성 축성공사에 동원된 인력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성돌에 연양, 양산 등의 지명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산 인근 각지의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랫부분의 큰 성곽돌을 보면 견고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축성 공사가 얼마나 고된 노역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문 중 남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동문·서문·북문은 각각 2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성내에는 4곳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었다.(수영성의 총 길이는 1,480m)

현재 좌수영성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허물어지고 없으며 수영성의 주산인 수영사적공원 인근의 620m 정도만 남아 있다.

나. 25의용단(二十五義勇壇)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2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수사 박홍은 왜적과 항전도 하지 않고 수영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수영에 침입한 왜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부녀자와 주민을 약탈, 살육하자 이를 보다 못한 성민이 죽기를 각오하고 7년 동안 유격전을 펼쳐 적에 대항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 이안눌이 확인이 되는 25분의 의용을 찾아내어 그들의 후손에게 군역을 면해주고 집집마다 '의용'이란 뜻말을 붙여 충절을 기렸다.

그후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사적공원에 비를 세우고 의용단이라 이름하였다.

매년 춘·추(음력 3, 9월) 2회씩 추모 제향(향사)을 지내오다 2006년부터는 음력 9월말 정일(丁日) 추계에만 1회 지내고 있다.

- 25의용단 사당건립 및 정화 : 기존의 의용단은 지형적으로 저습지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잔디 등 수목 생육이 어렵고 임진란 이후 400



여년 동안 사당도 없이 의용 제인비가 노천에 설치되어 우천시 제향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역민의 정신적 뿌리인 의용의 충의 정신이 서려있는 제단이 행적에 비하여 시설이 너무 왜소하여 후손된 도리에 맞지 않다 하여,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구청과 수영지역의 원로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사당건립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규모는 사당 1동(56.1㎡), 관리사 1동(19.8㎡), 내삼문(17.8㎡), 외삼문(10.9㎡), 담장 개·보수, 의용단 앞 주차장 설치, 조정사업 등으로 1999년 9월 기초 사업계획을 출발점으로, 수영지역 원로 등과 함께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2000년 3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0년 5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 4일자로 사당문안 선정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5의용단 사당 현판 문안을 선정하고 2001년 2월2일 준공하였다.

본당인 사당(祠堂)문안은 목숨을 버려 나라를 지킨 25의용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라는 뜻의 '의용사(義勇祠)', 내삼문(內三門)은 길이길이 좁아 오래도록 잊지 않는다는 뜻의 '영회문(永懷門)', 외삼문(外三



〈25의용 제인비〉

수영 역사 문화 탐방

門)은 성심(誠心)을 간직한다는 뜻의 '존성문(存誠門)', 관리사(管理舍)는 25사당 관리 및 향사봉행시 제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사당(典祀堂)'으로 하였다.

○ 향사 유래 과정

-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 『이안눌』이 25인의 사적(事績)을 채방하여 정방록에 게재, 대상자 집집마다 의용지정 부착
-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공원에 의용단비와 제실을 세우고 춘·추 2회 제향을 지냄(제주:좌수사)
- 1895년 갑오년 군제개혁으로 좌수영이 폐지되자 지방민이 제향(제주:수영면장)
-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민장이 부임하자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숭모계를 조직하여 야간을 틈타 제실 등에 위패를 모셔놓고 제향을 올림(제주:수영기교회)
- 1974년 9월 10일~12월 9일 부산시에서 우풍에 낡은 비석단 3개소에 의용 제인비 25기를 건립하고 외삼문 1동과 한식담장을 설치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 1977년부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주재하고 있다.

다. 정과정 유적지(鄭瓜亭 遺蹟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4호(2003.5.2)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17번지 일원(3,129.11㎡)
- 내 용 : 고려시대 문신인 정서가 유배생활을 할 때 정자를 짓고 오이밭을 일구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고려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은 곳으로 '동국여지승람', '동래부지' 등에 의하면 과정(瓜亭)은 '동래부 남쪽 1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는 없으나 그 터는 남아있다'고 기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정과정 유적〉

록되어 있으며, 특히 정과정 유적지는 우리말로 적혀 전하는 고려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가사문학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충신연주지사' 및 '유배문학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정과정곡』을 지은 곳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유적지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2003년 부산정보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정과정유적지 조성계획을 수립, 기존의 정과정비와 자연석(경암)을 공원내로 이전하고 팔각정과 놀이바당, 벤치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보호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2007년 12월에 완공하였다.

5. 문화재자료

□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磨崖地藏菩薩坐像)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7호(2001. 5. 1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58

수영 역사 문화 탐방

○ 내 용 : 지금의 옥련선원(전통사찰 지정 제28호/98년 10월 17일) 옛 자리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백산사(白山寺)가 있었다. 이 마애불(磨崖佛)은 그 때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불상(佛像)은 미륵불(彌勒佛)의 좌상이다. 조각 수법은 선각(線刻)으로 섬세하고 정제했으나 지금은 마멸이 심해서 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때에 버락이 쳐서 돌이 거꾸로 누워 현재 위치로 놓이게 되었다. 원래 이 도량은 미륵부처님의 용화세계(龍華世界)를 지향하는 사찰로서 옛부터 호국의 원찰로 유명했다.



〈소재지 : 민락동 327-2번지〉

6. 기타 유적

가. 안용복장군 사당

안용복장군은 조선시대 독도 및 동해안 수호의 대표적 인물로, 1967년 수영공원 산정에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충혼탑을 건립하여 기려오던 것을 장군의 업적에 비하여 충혼탑의 왜소함을 안타까이 여겨,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5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00년 7월 31일 착공, 2001년 3월 27일에 준공하였다.

수영공원 남단에 총 경역 337㎡(102평)규모로 사당1동(30.2㎡)을 짓고 현상공모를 통하여 동상1기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충혼탑을 이전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관리사를 건축하여 효율적으로 수강사를 관리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안용복 장군 사당 동상

하고 있고, 외벽에 독도실시간영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사당 현판을, 독도를 지켰다는 뜻의 '수강사(守疆祠)'로 정하고 매년 4월 18일 연례제향을 올리고 있다.

나. 송씨 할매당(수영 고당)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마을을 이루면서 동시에 마을과 마을의 각 가정의 안녕을 수호하는 당산신을 모셔 왔다. 당산신에 대한 제의는 매년 1회 또는 2회의 제의를 갖되, 그 제주는 마을 회의에서 생기복덕과 정결을 구비한 노령층의 인물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당산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제주로 선정되면 엄격한 금기생활을 하였으며, 제물의 구입 때나 조리 때도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는데, 만일 이를 어겼을 때는 당산신으로부터 신벌(神罰)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당산제의 기능은 마을의 공동체 의로써 주민 간의 화해와 단합에 있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입구)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송씨 할매당〉

○ 내 용 : 400여 년 전으로 추측되며 1981년 5월 11일 애향인 김기배 씨에 의하여 재건립되어 수영향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0일 수영구에서 전면 보수하였다. 송씨 할매당은 일제 때 왜병에게 항거한 송씨 할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송씨 제당을 세워 모시게 되었다. 성주신당 → 독신묘 → 곶술나무 즉 송씨 할매제 → 독신제 → 당산나무제의 순으로 제가 치뤄지고 있으나 1960년대 이전에는 송씨 할매제 → 독신제 → 먼물샘제 → 거릿대제의 순으로 매년 설달 그믐 자정에 제를 지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가, 2006년부터 정월 대보름날 수영향우회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 특히 수영고당은 일반제당과는 달리 독신을 함께 모시고 제를 지내고 있으며 자식이 군대에 가거나 먼길을 떠날때 무사안녕을 기원하면 큰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조씨 할매당〉

다. 조씨 할매당(주산 할매당)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조씨 할매당은 1922년 3월 18일에 건립되었으며, 1년에 한번 정월 열나흘날 자정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제의절차는 조씨 할매제 → 용왕제 → 25의용단 군사제 → 목신제 → 거릿대제의 순서이다. 당사의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 칸은 제단에 사용하는 제기를 보관해 둔 고방이고, 왼쪽 칸은 조씨 할매를 모시는 신당으로 나무판자를 붙여 제당을 만들고 그 위에 산신도 액자를 세워 두었다.

라. 최영장군사당(무민사, 武愍祠)

- 소재지 : 옛 수영성의 동문밖 왼편의 큰바위 앞에 위치(현재 수호 노 인정 옆 수영성로3번길 16 소재)
- 내 용 : 옛날 최영장군이 왜구를 격퇴하던 장소라 하여 매년 음력 정월보름 새벽에 애향인 태덕수씨가 제를 지내오다 2006년부터 수영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최영장군 사당〉

향우회에서 음력 3월 3일 제를 지내고 있다. 사당 뒤에는 선서바위라 하여 임진왜란때 향토 의병결사대인 25의용이 왜구와 싸워 죽기를 다짐한 큰 바위가 있다.

원래 이 자리는 강신부녀가 최영장군 영정을 모시고 살던 오두막집이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헐고 1973년 건립하였으나 훼손되어 2005년 5월(규모 7㎡) 목조·기와 팔작지붕으로 재건립하였다.

마. 장승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부산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장승의 기능 : 첫째 지역간의 경계표 구실, 둘째 이정표 구실, 셋째 마을의 수호신 역할이다. 길가나 마을 경계에 있는 장승에는 그것을 기점으로 한 사방의 주요 고을 및 거리를 표시하였다. 장승에 쓰는 장군명에는 민속적인 신명(神名)이 등장하는데 동쪽에 있는 장승에는 동방청제축귀장군(東方靑帝逐鬼將軍), 서쪽에는 서방백제축귀장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수영고당 옆 오솔길-좌, 우 설치〉

군(西方白帝逐鬼將軍, 남쪽에는 남방적제축귀장군(南方赤帝逐鬼將軍), 북쪽에는 북방흑제축귀장군(北方黑帝逐鬼將軍)이라고 써서 세워, 축귀하는 민간 신앙의 성격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장승을 서낭당·산신당·숫대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며, 액운이 들었을 때나 질병이 전염되었을 때에는 제사를 지냈다.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고당옆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세워져 있다.

바. 장대골 순교지

종교 유적지인 수영장대골은 조선 고종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순교지이다.

박근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영장대에서 1868년 음력 8월 4일 군문효수를 당한 전교회장 이정식, 그의 아들 이관복, 며느리 박소사, 조카 이삼근·이월주·양재현·



〈장대골 순교지〉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옥소사·차장득 등 8명이 순교하였다.

이들은 1977년 7월 17일 광안 본당 베드로 신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장대석 8개, 기와 조각, 동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유해는 현재 오륜대(부산 금정구 부곡동 산 15-1번지)에 있으며 기념비는 1988년 9월 30일 광안 천주교회에서 설립하였다.

사. 동래 고읍성(古邑城)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래현의 고적조에 고읍성이 나오는데 그 설명으로 “해운포에 있다. 동남은 석축이고 서북은 토축으로 둘레가 4,430척인데 지금은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동래부지》 성곽조에 서는 고읍성을 “해운포의 수영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동래구에 동래읍이 형성되기 이전에 망미동에 동래읍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지방병무청의 인접지역으로 추정되며 해당 부지(망미동 640-7번지 일원)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시행되어



〈동래 고읍성〉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수사좌선장비〉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 등이 발굴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유적지 보호를 위해 망미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옛 유적과 동일한 형태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아. 수사좌선장비

《동래영지》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수사로 역임한 분이 임진년(1592년)에서 경술년(1850년)까지 258년간 188명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수사비는 수영성 남문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연대순으로 한자리에 세웠다. 수사좌선장비는 33기(수사 32기, 우후 1기)로서 연대는 조선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 27년(1890) 사이에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의 재임중 공덕을 칭송하는 비이다.

자. 박인로 가사비(朴仁老 歌辭碑)

노계 박인로의 정신을 후세에 기리고자 토향회(土鄕會)에서 민락동 진조말산 무궁화동산(민락동 110-13번지)에 가사비를 2002년 4월 6

수영 역사 문화 탐방



〈박인로가사비〉

일 건립하였다. 가사비 전면에는 1598(선조31년)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의 침입과 병사들의 활약·승전·개선을 읊은 『태평사(太平詞)』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후면에는 박인로 가사비 건립 취지문이 기록되어 있다.

차. 임진왜란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壬辰倭亂左水營無主亡靈薦度碑)

임진왜란때 당시 좌수영 수사였던 박홍(朴泓)은 군영을 이탈하여 도



〈무주망령천도비〉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망갔으나 25의용을 비롯한 수영강변 토민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대를 조직하여 왜적에 대항하다 죽어갔다. 전란이 끝난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무주(無主)의 망령(亡靈)이 된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1999년 8월 25일 토향회에서 백산 높은 양지 바른 곳에 이 비를 건립하였다. 옥련선원(민락동 327-2) 입구에서 50m거리에 위치한다.

※ 천도(薦度) : 죽은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

카. 최한복 기념비(崔韓福 記念碑)

최한복(1895-1968)은 수영출신으로 수영을 사랑하며 한결같이 교육자로서 애국자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 민족정신과 고향사랑하기 교육에 헌신해 오셨다. 임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야간에 25의용단 제향을 주관하셨고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써 수영아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의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수영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를 정리하여 후세에 전



〈최한복 기념비〉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수영성 남문터〉

하게 되었다. 특히 수영팔경을 발굴하여 수영의 아름다움을 전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로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11월 20일 토향회에서 수영사적공원 25의용단 좌측 뒤편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전면에는 수영팔경의 서사를 새겼고, 후면에는 수영팔경가사비 건립 취지문을 새겼다.

타. 수영성(水營城) 남문(南門)터

수영성 남문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의 주문으로서 1972. 6. 26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 현재는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문)만 남아 있고 그 양측에 돌로 새겨진 박견(狛犬)이 석축위에 놓여져 있으며 원래 수영동 286-1번지에 있었으나 수영사적공원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1962년 학교가 이전하면서 현재의 수영사적공원 동편 입구에 옮겨 보존되고 있다. 현재의 수영성 남문터 표석은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

제1편 수영구 변천사



〈수영성 장대터〉

용하고자 옛 수영성 남문 위치에서 10m정도 떨어진 수영동 297번지 도로위에 2002년 9월 건립하였다.

파. 수영성(水營城) 장대(將臺)터

장대는 군사를 지휘할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설치된 대를 말하며 좌수영이 있었을때 수군이 무술을 닦는 곳으로서 무술시합을 했던 곳이기도 한다. 이 무술시합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해졌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수사(水使)가 수군의 간부가 될 수 있는 사령장이 주어졌다. 또한 이 장대에는 적의 침략을 살피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어 광안리 앞바다에 침입해 오는 적선을 관측하고 지휘하는 척후소이며 지휘소였다. 또한 조선 고종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순교지이기도 하다. 현재의 위치는 수영중학교 뒤편 광안4동 547번지 일원으로 수영성 장대 표석은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광안4동 산33-3번지 체육공원내에 2003년 12월 건립하였다.



〈좌수영 선소 유허비〉

하. 좌수영(左水營) 선소(船所) 유허비(遺虛碑)

좌수영 선소는 조선시대 좌수영 수군의 군선이 정박하던 수영강 하구를 말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 군선이 여기서 출발하여 왜선을 격멸했던 역사적 사실과 선조들의 호국열이 깃든 장소이다. 현재의 선소 유허비는 1988년 4월 6일 부산의 뜻있는 학자들이 힘을 모아 유허비문과 노계 박인으로 선상탄의 일부를 새겨 수영동 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기증받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 세웠다.

7. 명승지

가. 수영의 명산(名山)

수영을 형성하고 있는 내륙의 산으로는 남천동·광안동·수영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는 금련산(金蓮山, 415m)과 망미동의 북쪽 배산(背山)인 배산(盃山, 254.9m), 민락동을 형성하면서 바다로 볼썽 내밀려 수영만(水營灣)을 형성하고 있는 백산(白山, 129.5m)이 있다.

1) 금련산(金蓮山) : 금련산은 남천동, 광안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고 망미동의 남쪽 배산(背山)이 된다. 황령산과 몸을 같이 하면서 망미동의 배산(盃山)을 마주 보고 있다. 태백산맥이 부산으로 뻗어 내려 금련산맥과 금정산맥으로 나뉠 때 금련산은 금련산맥의 중심이 되는 산이다. 금련산이라 불리게 된 연유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산 정상에 능선들이 연꽃 모양이라 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의 황금색 금련화(金蓮花)로 말미암아 불리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금련산〉

그런데 여자의 예쁜 발을 금련(金蓮)이라 하고, 미인의 정숙한 걸음걸이를 금련보(金蓮步)라고도 한다. 금련산에는 반야암(般若岩)과 바라밀다사(波羅蜜多寺)가 있었지만(마하사 맞은 편) 지금은 없어지고 축대만 남아 있다. 또한 금련산에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연산모종-蓮山暮鐘) 으뜸이라 하여 수영팔경(水營八景)에 들어 있다.

2) 배 산(盃山) : 망미 1동 뒷산인 배산(254m)은 수영구와 연제구에 걸쳐 있는 유서 깊은 산이다. 산 중턱에는 옛 거칠산국(居柒山國)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배산성지(盃山城址)가 있으며, 이 지역이 옛 거칠산국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배 산〉

옛부터 이 지역의 주변 경치가 수려하여 고려조에는 선인(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謙孝臺)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자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취를 찾을 길이 없다.

- 3) 백 산(白 山) : 수영천이 바다와 어울리는 자리에 민락동의 배산(背山) 노릇을 하는 산이 백산이다. 높이는 129.5m 정도이고 수영교의 오른쪽에 있다. 옛 문헌에 보면 지금의 백산을 소백산, 대백



〈백 산〉

산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다. 백산이라 불리게 된 연유에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백산 아래에 갈대가 우거져 있어 백학(白鶴)이 찾아들어 백학산(白鶴山)이라 한 것이 백산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수영천과 바다에 안개가 깔릴 때면 산 전체가 하얗게 보여 그렇게 불렀다는 말도 있다. 한편으로 이 산의 옛 이름이 향산(向山)인데 향산을 잘못 써서 백산(白山)이 되었다는 말이 있으나 《동래부지》나 《동래영지》에도 백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 정상에는 호랑이 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속인들이 주술(呪術)하는 곳이 되어 있다. 또한, 백산의 형상이 마치 수영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자의 모습이라 하여 수영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수영야류 제4과장(사자무과장)에는 호랑이를 사자의 먹이로 제공하는 특이한 점이 있다. 또한 백산 앞에 있는 작은 산을 속칭 진조말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문헌에는 진조말산이란 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있었던 진조암(眞潮岩-일명 조망대(眺望臺) 격인 점이대(岾夷臺)의 다른 이름인 듯 함)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불려진 듯 하다.

나. 수영의 명대(名臺)

- 1) 겸효대(謙孝臺) : 망미1동 뒷산인 배산(盃山) 산정에 고려시대의 선인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동래현령 정추(鄭樞)나 조선시대 동래부사 윤환(尹煥), 이춘원(李春元)의 시에도 겸효대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배산 산정의 겸효대에서 바라본 수영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으리라 여겨진다.

- 2) 망경대(望鏡臺) : 남천동 KBS 방송국 남쪽 아랫길에서 좀더 바다쪽으로 나간 자리(현재 수영구청 인근)에 두 토산(土山)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바다 경관을 바라보기 좋은 언덕이 있었다. 그래서 거울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대(臺)라 하여 거울 경(鏡)자를 써서 망경대라 한 것 같다.

- 3) 점이대(岾夷臺) : 일명 ‘침이대’라고도 하며, 민락동 백산(白山) 남쪽, 속칭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조선시대 좌수영 수군이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척후처-斥候處)가 있던 곳이다. 일부 지도에는 이 자리를 점미대(岾美臺)라 적고 있으나, 점미대라면 아름다움을 점망(岾望)한다는 뜻인데지만 이는 점이대가 변해서 생겨난 이름으로 여겨진다. 점이대 앞에는 기장(旗章)바위가 있어서 척후병이 척후를 할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 백기를 올리고, 일이 발생하면 적기를 올렸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 1998년 5월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서 백산 정상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



〈점이대 표식〉

다. 광안리해수욕장(廣安里海水浴場)

남천동의 삼익비치아파트 동쪽에서 민락동 바다 매립지까지의 사장(沙場)을 말한다. 해수욕장은 총면적 82,000m², 사장길이 1.4Km, 사장폭은 25~110m이다. 금련산에서 내린 질 좋은 사질(沙質)에 완만한 반월형(半月形)으로 휘어진 사장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이다. 1964년 신부산 구획정리로 광안리 일대가 정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주위는 논과 밭이 있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1971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해수욕장 주변에 휴식공간인 만남의 광장, 해변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제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커피숍이 즐비하며, 진미를 자랑하는 음식점과 생선 횡집이 모여 있다. 백사장내에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공연 장소로 활용하며 광안리어방축제, 바다축제, 무용제 등 예술문화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변테마거리는 넓은 보행자 도로와 녹지공간을 두어 사계절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수교(0.9km)인 광안대교가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야간이면 바다·빛미술관과 함께 화려한 경관조명으로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야경〉



〈광안대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부산의 명소이다.

라. 광안대교

광안리 앞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는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총연장 7.42km, 중앙현수교 900m, 폭 18~25m, 왕복 8차선의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으로서의 웅장한 모습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침단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환상적인 야간 조명은 광안리해수욕장의 야경과 어우러져 낭만과 휴식을 제공하는 부산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또한 광안대교에서는 해맞이 축제와 부산불꽃, 국제마라톤대회 등을 개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마. 바다·빛미술관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 「바다·빛미술관」은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3년여의 준비끝에 2007

수영 역사 문화 탐방



〈바다·빛미술관〉

년 4월에 준공된 세계 최초의 ‘빛’을 주제로 한 야외미술관(Museum)으로 일반적인 도시경관조명과는 달리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빛과 영상으로 채색하여 광안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열린 미술관으로 재창조하여 기존 광안대교 야경과 더불어 매일밤 자연과 예술의 환상적인 만남을 연출한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 선생의 ① ‘디지털레이션’은 광안리 중심에서 자연과 예술, 뉴미디어의 만남을 상징하고 미국의 개념미술가 제니 홀처의 ② ‘빛의 메세지’는 백사장에 삶과 사회에 대한 함축적인 메시지를 프로젝터로 그려낸다. 심문섭 작가의 ③ ‘섬으로 가는 길’은 수막 스크린에 레이저를 투사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해변 왼쪽 전광판에서는 샤를 드 모의 ④ ‘영상 인터랙티브’가 상영되고 해변 오른쪽에는 장 피에르 레노의 화분 중 최대작인 ⑤ ‘생명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의 조명 연출가 얀 카슬레의 ‘은하수 바다’는 테마거리 1.4km를 따라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경관조명을 연출해 낸다.

광안리는 이제 새로운 ‘빛’의 미술관으로 변신하여 피서를 위해 찾

제3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민락 수변공원〉

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닌 예술과 품격이 숨쉬는 연중 휴양지이자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바. 민락 수변공원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길이 543m, 너비 60m이며, 면적은 33,000㎡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바닥에는 컬러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막,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각종 문화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사.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 수영민속예술관과 야외놀이마당

수영은 지리적으로 수영천과 광안리해변이 가까이 있어서, 일찍부터 농·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많았다. 수영아류,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농청놀이 등은 문화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

수영 역사 문화 탐방

고 있는 유명한 민속유산으로서 수영구의 자랑이다.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사업은 '95년 7월 수영사적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시발점으로 토지보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5월 탄생하게 되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264㎡(한옥 2층), 놀이마당 1,221㎡(1,500석)이며, 부대시설은 사적원 및 실내 연습실 등이 있다. 수영야류 등 중요무형문화재와 전통민속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풍물·전통·춤·민요·민속 등의 전통문화학교가 개설되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 수영사적원

수영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던 것을 수영역사의 현장인 수영사적공원내에 민속자료 등을 전시할 사적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영고적민속관 건물을 개·보수하여 좌수영 성지의 역사적 배경 소개와 전통 문화재, 민속놀이 소품 등을 전시하여 수영공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수영의 특성, 역사 등을 알기 쉽게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사적원 내부〉

하고 있다. 기존 건물 132㎡를 개·보수하여 99㎡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른 지역의 전시관을 참고로 하고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2000년 9월 공사에 착공 2001년 3월에 준공하였다.

아. 수영팔경(水營八景)

한국의 등줄기 태백산맥이 마지막 정기를 모아 부산 시내로 들어서서 금련산맥(金蓮山脈)을 이루고 그 금련산맥이 황령산(荒嶺山), 금련산(金蓮山)과 더불어 남천만을 이루었다.

수영의 서남쪽은 부산항의 부산만(釜山灣)이 되고, 동남쪽은 수영만과 수영강이 되었다. 물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수영은 그 전체가 명승지라 할 수 있다. 이 명승지에서 옛 사람은 수영팔경을 자랑했다. 수영 팔경은 지금의 수영동(수영성)에서 바라본 절경을 노래한 것으로서 수영의 향토 사학자 최한복(崔漢福) 선생을 통해 국어학자 박지홍에 전해져 알려졌다고 한다.

수영 역사 문화 탐방

- 1) 운대귀범(雲臺歸帆) : 해운대쪽에서 돌아오는 뚝단배의 감회어린 정감을 노래한 것이다.
- 2) 봉대월출(烽臺月出) : 해운대 뒷산인 간비오산에 있었던 봉수대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노래 한 것이다.
- 3) 진두어화(津頭漁火) : 수영강 하구에 고기잡이 배의 불빛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4) 남장낙안(南場落雁) : 남촌(南村) 앞 사장을 남장(南場 - 광안리 해변)이라 했고, 그 넓은(廣) 모래 언덕(岸)을 광안(廣岸)이라 했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자로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광안리해변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5) 장산낙조(長山落照) : 해운대구의 주산(主山)인 장산(長山)에 해지는 모습이 되 비추어진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6) 백산만취(白山晩翠) : 해질녘 백산의 푸르름이 바다에 드리워진 경관을 노래한 것이다.
- 7) 재송직화(栽松織火) : 수영동에서 건너보이는 재송마을(재송동)의 배



〈진두어화(津頭漁火)재현-광안리어방축제〉

제3편 수영 사적공원과 문화재

짜는 베틀가의 불빛을 노래한 것이다.

- 8) 연산모종(蓮山暮鐘) : 해질녘 연산(蓮山-금련산 金蓮山) 저 멀리서 사바세계를 누비며 들려오는 범종소리를 말한다. 금련산에는 마하사와 반야암, 바라밀다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마하사만 남아 있다.



〈1960년대 광안티해수욕장〉



〈1979년 광안티해수욕장 주변〉

8.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 사업

1995년 3월 1일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사업은 비교적 정비복원이 용이하고 수영성과 관련된 문화재가 많은 수영사적공원 일원의 문화재를 정비 복원하여 역사 교육장 및 시민휴식처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부산의 새로운 역사유적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원 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좌수영 고평(제270호), 좌수영 푸조나무(제311호),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수영성 남문(제17호)을 비롯하여, 시지정 기념물인 25의용단(제12호), 좌수영성지(제8호)가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인 수영아류(제43호), 좌수영 어방놀이(제62호)와 시지정 무형문화재인 수영농청놀이(제2호), 수영지신밟기(제22호)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수영민속예술관 등이 있다.



〈수영사적공원 기본 정비계획 조감도〉

■ 주요 추진성과 (95~현재까지)

- 토지보상, 성지발굴 공원정비 공사 등
-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2000년 5월 준공)
- 성지 진입도로 개설 L=100m, B=8m(2000년 6월 준공)
- 공원내 화장실 건립(2000년 12월 준공)
- 25의용단 사당 건립 및 충혼탑 정화사업(2001년 2월 준공)
- 안용복장군 사당 및 동상 건립(2001년 3월 준공)
- 수영사적원 설치(2001년 3월 준공)
- 25의용단 주차장 설치 및 수사선 정비 이전(2002년 2월 준공)
- 수사선정비(33기) 이전 건립(2002년 3월 준공)
- 공원 확충, 녹지대 조성(794㎡), 수사비 보호책 설치(2007년 9월 준공)
- 25의용사 앞 잔여건물 매입, 녹지대 조성
- 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2011년 12월)
- 좌수영성지 복원정비계획 수립(2012년 2월)
- 시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마련(2012년 5월 2일 고시)
- 좌수영성지 정비복원 사업 추진 계획(2013/2014/2015년 매년수립)
- 연도별 토지매입 현황(2013년 2필지, 2014년 2필지, 2015년 4필지)

■ 향후 추진계획

- 남문 및 성곽복원에 필요한 부지매입(남문 및 서문 성문, 성곽복원)



〈1960년대 수영교차로 주변〉

1. 수영사적 자료
2. 수영의 문화시설
3. 수영사람 이야기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1. 수영사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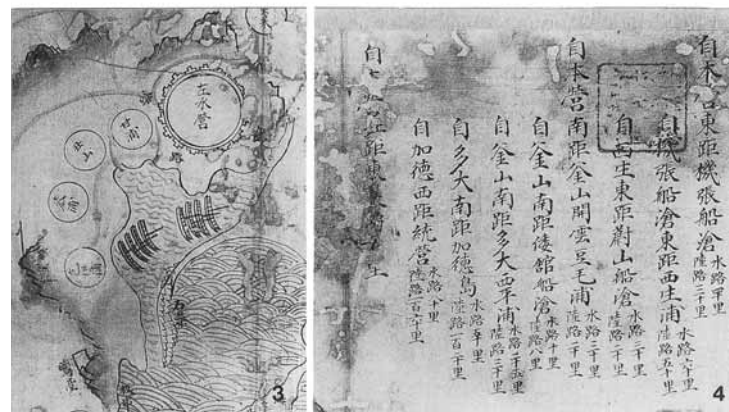
■ 수영사적 자료



1



2



4

〈경상좌수영지도(규장각 소장, 339.8×48.4cm) 전도(1·2) 및 좌수영 세부도(3)·우측상 단병기단(4)〉

수영사적 자료



〈경상좌수사 강응환 초상화(1정조하사 1795년 제작)
· 물기재 한액기문(2) · 물기재 한액(3)〉

수영사적 자료



〈경상좌수사 강응환 유서(1) · 영좌수군시명기(2) · 교지(3)〉

수영사적 자료



〈고려중요처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92년 작성)〉

2. 수영의 문화시설

가. 방송국

1) KBS부산방송총국 : 남천동 수영로 765에 자리잡고 있는 공영방송국의
로서 1988년 5월 20일
자로 남천동 새 사옥으
로 옮긴 후 라디오, TV
등 각종 방송시설과
3,300석의 공연장, 전시
실 등을 갖추고 부산문
화를 선도하고 있다.



2) MBC부산문화방송국 : 부산문화방송국(개국 : 1959. 4. 15. 중구 중앙동)
은 1998년 4월 15일 개
국 39주년을 맞이하여
수영구 민락동 백산길
47에 새로이 문을 열었
다. 문화방송은 연건평
23,605㎡의 지하 1층
지상 14층의 현대식 건
물로서 TV, 라디오 방송
및 MBC아트홀 등을 갖
춘 부산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상업 방송국이다.



나. 수영구 도서관

이전 해운대교육청을 개·보수하여 2002년 7월 15일 개관한 수영구 도서관(남천동 남천역4길 147)은 부지면적 6,171㎡, 연건평 2,748㎡(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70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 자료실을 비롯하여 각종 열람실과 60,000여종의 자료를 비치하고, 시청각실과 전시실에서는 영화감상, 강연회, 교양강좌, 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는 종합문화공간이다.



다. 수영구 문화센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상업시설을 매입하여 1997년부터 문화센터로 사용되다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11월 1일 개소하였다.

지하층 ~ 지상5층, 연면적 2,461.55㎡의 규모로 2층에는 바다갤러리, 어울림공간, 3층은 동아리방 3개실, 4층은 댄스 및 밴드연습실, 개인연습실, 창작실, 5층은 다목적강당, 마루연습실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일상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광안리 해변 야외상설무대

1998년 2월 민락동 끝 광안리 해변가(민락타운 앞)에 조성된 야외무대는 매년 바다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등이 성황리에 개최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제공을 위해 상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된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안리 해변 야외무대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욕구를 해결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마.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은 광안4동 산60-3번지, 광안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금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수련시설과 숙박시설, 집회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자연과 학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수영자랑 11가지

광안대교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부산 센텀시티 사이를 잇는 길이 7.42km, 넓이 18~25m의 해상교량으로서 2층(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 규모에 10만가지 이상의 색상 연출이 가능한 첨단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공사비 7,899억원과 공사기간 8년(1994~2002년)을



소요하여 내진 1등급의 지진은 물론 평균 초속 45m의 태풍 및 높이 7m의 파도 등에도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바다·빛 미술관

광안리해수욕장은 깨끗한수질과 반달 형태의 넓은 백사장, 그리고 낭만이 깃든 카페와 횃집, 녹지대, 야외무대, 해변테마거리 등이 위치하고 있는 해양관광명소이다.

바다·빛 미술관은 빛과 영상이 조화를 이룬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로서 매일밤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데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 6점이 설치되어 있다.



수영사적공원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성이 있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에 항거하여 순절한 25인의 의로운 넋을 모신 25의용사와 독도 수호에 공헌한 안용복 장군의 사당인 수강사, 수영성 남문, 천연기념물인 수영동 굴솔 및 푸조나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인 수영아류, 좌수영어방놀이 등을 보존하는 수영민속예술관이 소재하고 있다.



수영아류

약 250년 전부터 수영지역에서 행해지던 들놀이로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마을 축제의 한 형태이다.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는 서민들의 놀이로 양반, 영노, 할미·영감, 사자무의 4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이다.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만의 멸치잡이 후리소리를 연희화한 놀이로 어로작업의 호흡을 맞추고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하여 부르던 어업 노동요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내왕소리, 사리소리, 가래소리, 칭칭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영지신밧기

250여 년의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며 마을의 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 아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광안리어방축제

매년 4월 넷째주 어방이라는 수영의 전통문화 특성을 소재로 광안리해변 일원에서 열리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봄축제이다. 화려한 거리퍼레이드, 실경 뮤지컬 그물끌기 한마당, 진두어와, 개·폐막공연, 어방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 민속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부산불꽃축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경축하기 위해 그 해 11월 1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졌던 해상 불꽃쇼가 기원으로서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광안대교 및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화려한 불꽃잔치를 연출함으로써 해마다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남천·민락 횡촌

광안리해수욕장의 서쪽인 남천동과 동쪽인 민락동 지역에 300여개소가 넘는 횡집들이 밀집하여 형성된 “남천·민락 횡촌”은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의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 횡집타운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금련산

해발 415m인 금련산의 명칭은 산의 형태가 연꽃 모양이라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나타난 황금색 연꽃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반야암 등이 있었던 위치에는 아직 축대 흔적이 남아 있고 현재는 청소년수련원,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자리잡아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영강과 수변공원

수영강은 건너편에 선암시티가 위치할 뿐 아니라 강변 양쪽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공원, 산책로, 친수공간 등이 조성되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민락수변공원은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친수공원으로 친수호안, 화단, 벤치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길이 543m, 너비 60m, 면적 33,000㎡(4만명 수용 가능) 규모이다.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가. 국가지정문화재

1) 국보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제69호	1397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151-2호	조선시대	국가기록원 부산역사기록관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제200호	통일신라	부산박물관
영대2년명납석제호(永泰二年銘銅石製壺)	제233호	766년	부산박물관
동궐도(東闕圖)	제249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백자대호(白磁大壺)	제310호	조선시대	국립고궁박물관 위탁보관

2) 보물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 심종석탑(梵魚寺 三鍾石塔)	제250호	통일신라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김지은나 묘법연화경 권제3 (紙紙銀泥 妙法蓮華經 卷第三)	제269-3	1422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4-5	제419-3호	조선전기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범어사 대웅전(梵魚寺 大雄殿)	제434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안중근의사 유묵(安重根義士 遺墨)	제569-6호 제569-16호	1910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중구 대청동 1가 22
해서임행일기(海西臨行日記)	제574호	조선후기(17c)	기장군 철마면 아곡리 475-3
초충도수병(草蟲圖綉屏)	제595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용기문토기(隆起文土器)	제597호	신석기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마두식각배(馬頭飾角杯)	제598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쌍자승자총 동(雙字勝字統筒)	제599호	1583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의령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宜寧菩提寺址 金銅如來立像)	제731호	통일신라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대비사촌 청경진하도병 (趙大妃四旬稱慶陳賀圖屏)	제732호	1847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한중가례도 병(韓中嘉禮圖屏)	제733호	1844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지자총통(地字銃筒)	제863호	1557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주범망경(主梵網經)	제894-2호	고려말기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조송가정대부상 의중주 원사도 평의사(사사)왕지 (趙崇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權平議使司使王旨)	제863호	1396년	국립중앙박물관 위탁 보관
조서경무과 급제 왕지(趙瑞興武科及第王旨)	제964호	1435년	국립중앙박물관 위탁 보관
박문수 초상(朴文秀 肖像)	제1189-2호	조선후기	남구 용호동 176-30
불조심경(佛祖心經)	제1224-2호	고려말기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범어사 조계문(梵魚寺 曹溪門)	제1461호	조선후기(17c)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조선 후기 문인 초상(朝鮮後期 文人 肖像)	제1498호	조선후기	남구 용호동 176-30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李德成 肖像 및 關聯資料 一括)	제1501호	조선후기(18c)	부산박물관
영산화상도(靈山會上圖)	제1522호	1565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금장요장경(金藏要集經)	제1525호	고려말~조선전기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梵魚寺 木造釋迦來三尊坐像)	제1526호	1661년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목장지도(牧場地圖)	제1595-2호	1678년	부산대학교 도서관
경상총여도(慶尙總輿圖)	제1599호	18세기	남구 용호동 176-30
예안 김씨 가전 계획도 일괄 (禮安金氏家傳契圖一括)	제1616호	1546년 1581년	중구 대청동 1가 22번지
(주관계획도, 기성입적사주도, 금오계획도)		1606년	

3) 사적(史蹟)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동래패총(東萊貝冢)	제192호	삼한시대	동래구 낙민동 100-18 일원
금정산성(金井山城)	제215호	조선시대	금정구 금성동 일원
동심동매총(東三洞埋冢)	제266호	신석기시대	영도구 동삼동 750-1 일원
복천동고분군(福泉洞古墳群)	제273호	삼국시대	동래구 복천동 50 일원

4)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釜山 楊亭洞 배롱나무)	제168호	약 800년	부산진구 양정동 산73-28번지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釜山 梵魚寺 藤나무群落)	제176호	약 100년	금정구 청룡동 산2-1번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洛東江 下流 철새 渡來地)	제179호	약 130종	북구, 서해구, 강서구 일원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釜山 田浦洞 球狀斑巖)	제267호	제3기말	부산진구 전포2동 산12-20번지 일원
부산 좌수영성지 공술(釜山 左水營城址 公塿)	제270호	약 400년	수영구 수영동 229번지
부산 구포동 당술(釜山 龜浦洞 當塿)	제309호	약 500년	북구 구포동 106-23번지 일원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釜山 左水營城址 푸조나무)	제311호	약 500년	수영구 수영동 27번지

5) 명승(名勝)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영도 태종대(釜山 影島 太宗臺)	제17호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일원
부산 오륙도(釜山 五六島)	제24호		남구 용호동 936번지 일원

6)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분 야	소 재 지
동래야무(東萊野謠)	제18호	민속극	동래구 온천동 산13-3번지(부산민속보존협회)
수영야무(水營野謠)	제43호	민속극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영민속보존협회)
대금산조(大琴散調)	제45호	기악	동래구 온천동 8-8번지(대금산조보존회)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魚方놀이)	제62호	민속놀이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영민속보존협회)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굿)	제82-가호	무속	해운대구 반여동 1139-11동(해안별신굿보존회)

7) 등록문화재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釜山臨時首都政府廳舍)	제41호	1925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내
부산 송정역(釜山 松亭驛)	제302호	1940년	해운대구 송정동 299-2번지
부산 북평산배수지(釜山 北平山 配水池)	제327호	1910년	중구 대청동 1가 6-4번지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舊 慶南商業高等學校 本館)	제328호	1927년	서구 서대신동 3가 52번지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구 남신전기) 사옥 (韓國電力公社 中釜山支店舊 南新電氣 社屋)	제329호	1932년	서구 토성동 1가 23-번지
부산 정란각(釜山 貞蘭閣)	제330호	1939년	동구 수정1동 10-10번지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釜山 草梁洞 日式家屋)	제349호	1925년	동구 초량3동 81-1번지
재한유엔기념공원(在韓UN紀念公園)	제359호	1961년	남구 대연4동 779-1번지 일원
구 성지곡수원지(舊 聖地谷水源池)	제376호	1909년	부산진구 초읍동 43번지 일원
다칠전기기관차 201호	제416호	1950년	부산철도차량관리단

나. 부산시지정문화재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동래부 동헌 충신당(東萊府 轉軒 忠信堂)	제1호	조선시대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수인동, 동래부 동헌 충신당)
대대포객사(多大浦客舍)	제3호	조선시대	사하구 대대1동 산44번지
망미루(望美樓)	제4호	조선시대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수인동, 동래부 동헌 충신당)
동래부 동헌 외대문(東萊府 轉軒 外大門)	제5호	조선시대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수인동, 동래부 동헌 충신당)
동래향교 대성전(東萊鄉校 大成殿)	제6호	조선시대	동래구 동래로 103 (명륜동)
충렬사(忠烈祠)	제7호	조선시대	동래구 충렬대로 345(인력동, 충렬사)
동래 정관청(東萊 將官廳)	제8호	조선시대	동래구 명륜로94번길 36-6(수인동)
오층석탑(五層石塔)	제9호	고려시대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삼층석탑(三層石塔)	제10호		서구 구덕로 225번지(경남대학교)
원효암동편심층석탑(元曉庵東便三層石塔)	제11호	통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원효암서편심층석탑(元曉庵西便三層石塔)	제12호	통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만덕사지당간지주(萬德寺址幢竿支柱)	제14호		북구 만덕2동 465-6번지
범어사당간지주(梵魚寺幢竿支柱)	제15호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석등(梵魚寺石燈)	제16호	통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수영성남문(水營城南門)	제17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동)
동모(銅矛)	제18호	삼한시대	동래구 북천로 63(북천동, 북천박물관)
동모(銅矛)	제19호	삼한시대	동래구 북천로 63(북천동, 북천박물관)
동마두(銅馬頭)	제20호	삼한시대	동래구 북천로 63(북천동, 북천박물관)
군관청(軍官廳)	제21호	조선시대	동래구 충렬대로 345(인력동, 충렬사)
범방동신층석탑(凡方洞三層石塔)	제23호		강서구 미음동 1520-325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東萊府 東下面 古文書)	제24호		남구 유엔평화로 63(정릉동, 유엔기념공원)
이안불청문인시목판(李安訥靑龍藏寺木板)	제25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천수책판(千手冊版)	제26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어산집책판(魚山集冊版)	제27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범어사기·범어사창건사적·범어사교적판 (梵魚寺記·梵魚寺創建史蹟·梵魚寺古蹟板)	제28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선묘출요책판(禪妙出要冊版)	제29호	일제강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권왕문책판(權王門冊版)	제30호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태진화상주심경(太眞和尚注心經)	제32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함하어묵(涵虛語默)	제33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자공직자(自空直字)	제34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제35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제36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제37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금강반야비로밀경변상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제38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정릉동)
불조약대통제(佛祖歷代通載)	제39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몽산화상범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	제40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묘법연화경(梵魚寺 妙法蓮華經)	제41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내원정사 진언집(內院精舍 眞言集)	제42호	조선시대	서구 영광산로 40번길 80 (서대신동3가, 내원정사)
내원정사 조상경(內院精舍 造像經)	제43호	조선시대	서구 영광산로 40번길 80 (서대신동3가, 내원정사)
내원정사 염불보문 (內院精舍 念佛普門文)	제44호	조선시대	서구 영광산로 40번길 80 (서대신동3가, 내원정사)
내원정사 묘법연화경 (內院精舍 妙法蓮華經)	제45호	조선시대	서구 영광산로 40번길 80 (서대신동3가, 내원정사)
범어사명 유제시루(梵魚寺銘 鑄製시루)	제46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정릉동, 유엔기념공원)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內院精舍 木造觀音菩薩坐像)	제47호	조선시대	서구 영광산로 40번길 80 (서대신동3가, 내원정사)
유원각선생 대안감고비 및 비각 (梁遠閣先生 埋案感古碑 및 비閣)	제48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정릉동, 유엔기념공원)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포은시교(圃隱詩藁)	제49호	조선시대	부산진구 초읍동 산59-1번지 부산시립시인도서관
가덕도등대(加德島燈臺)	제50호	조선시대	강서구 가덕해안로 123(가덕동)
범어사사천왕도(梵魚寺四天王圖)	제51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청룡동)
범어사제석신중도(梵魚寺釋神衆圖)	제52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청룡동)
범어사관음잔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觀音殿白衣觀音菩薩圖)	제53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청룡동)
마하사현왕도(摩訶寺現王圖)	제54호	조선시대	
범어사의상대사영정(梵魚寺義湘大師影幀)	제55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청룡동)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金允謙筆 嶺南紀行書帖)	제56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가영각 시첩(舊英閣 詩帖)	제57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금강전도 12곡병(金剛全圖 12曲屏)	제58호	기타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동래 고지도(東萊 古地圖)	제59호	기타	서구 동대신동3가 번지 동아대학교박물관
대원군 초상화(大院君 肖像畫)	제60호	조선시대	서구 동대신동3가 번지 동아대학교박물관
복천사지장사왕도(福泉寺地藏十王圖)	제61호	조선시대	신선동 3가 산6(복천사)
복천사미미타극락회상도 (福泉寺彌陀極樂會相圖)	제62호	조선시대	신선동 3가 산6(복천사)
범어사 팔상 · 독성 · 나한전 (梵魚寺 捌相 · 獨聖 · 羅漢殿)	제63호	조선시대	청룡동 546번지
대방광불화엄경 권40 (大方廣佛華嚴經 卷四十)	제64호	조선시대	
복천사조상경(福泉寺造像經)	제65호	조선시대	신선동 3가 산6 (복천사)
복천사 선원제자집도서 (福泉寺 禪源諸集都序)	제66호	조선시대	신선동 3가 산6 (복천사)
범어사대웅전 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제67호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제68호		
범어사대웅전제석신중도	제69호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제70호		청룡동 546
범어사비로전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제71호		청룡동 546
범어사 미륵전 목조미륵좌상	제72호		
범어사석조연화대좌하대석	제73호		
지수행거리병풍	제74호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제75호	조선시대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 羅尼經)	제76호	조선시대	남산동 385번지 금정중학교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어진존제명첩(眞前濟 題名帖)	제77호	조선시대	남구 유인평화로 63(유동리평생기념관)
천상열차분이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제78호	조선시대	남구 유인평화로 63(유동리평생기념관)
이의암 필 산수도(李義養筆 山水圖)	제79호	조선시대	남구 유인평화로 63(유동리평생기념관)
금강반야비리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제80호	조선시대	청룡동 범어사
보리달아사행론(菩提達磨四行論)	제81호		청룡동 범어사
선문염송집(禪門頌集)	제82호		청룡동 범어사
대방광불화엄경 권41 (大方廣佛華嚴經 卷四十一)	제83호	고려시대	
이덕성가 문집(李德成家 文籍)	제84호	조선시대	남구 유인평화로 63(유동리평생기념관)
장안사용진전석조석가삼존삼육나한상 (長安寺 應真殿 石造釋迦三尊十六羅漢像)	제85호	조선시대	
장안사명부전석조지장사왕상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十王像)	제86호	조선시대	
장안사대웅전석가영산회상도 (長安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제87호	조선시대	
장안사용진전석가영산회상도 (長安寺 應真殿 釋迦靈山會上圖)	제88호	조선시대	
장안사명부전지장보살도 (長安寺 冥府殿 地藏菩薩圖)	제89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로 482(장안읍, 장안사)
범어사동종(梵魚寺 銅鐘)	제90호	조선시대	청룡동 546번지
운수사대웅전(雲水寺 大雄殿)	제91호	조선시대	모라동 5번지
운수사대웅전석조여래삼존좌상 (雲水寺 大雄殿 石造如來三尊坐像)	제92호	조선시대	모라동 5번지
선암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仙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附藏遺物)	제95호		
범어사원효암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제96호	조선시대	
원광사 영산회상도(圓光寺 靈山會上圖)	제97호	조선시대	동래구 쇠미로 3-22(사직동)
동래향정 고왕록(東萊鄉政 高王錄)	제98호	조선시대	동래구 동래로 103(명륜동, 동래향교)
동래향교 고왕록(東萊鄉校 高王錄)	제99호	조선시대	
흑유호 및 흑유장병(黑釉壺 및 黑釉淨瓶)	제101호	고려시대	
분청사기인화국화문사자부대호 (粉靑沙器印花菊花文四耳附鉢)	제102호	조선시대	
갑인춘 친정도(甲寅春 親政圖)	제103호	조선시대	
고려사(高麗史)	제104호	조선시대	
천안사 법어(天安寺 法話)	제105호	백제	
장안사 명부전(長安寺 冥府殿)	제106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로 482(장안읍, 장안사)
장안사 응진전(長安寺 應真殿)	제107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로 482(장안읍, 장안사)
선광사 석가여래상도기(仙光寺 釋迦牟尼像道基)	제108호	조선시대	덕포2동 선광사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분 야	소 재 지
김홍도 필 산수인물도(金洪道山水人物圖)	제109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심사정 필 산승도(沈正筆山僧圖)	제110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류성룡 필 진시무차 초고 (柳成龍筆 陳時務草 草稿)	제111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백자 철화옹문호(白磁鐵畫龍文壺)	제112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백자 대호(白磁大壺)	제113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곤여전도(坤輿全圖)	제114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服飾遺物)	제115호	조선시대	동래구 우장춘로 157-59 (온천동, 금정사)
추정사 묘법연화경(龜井寺 妙法蓮華經)	제116호	조선시대	
해광사 선원재전집도서 (海光寺 禪源叢書集都序)	제117호	조선시대	
해광사 대방광불화엄경 권제23 (海光寺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3)	제118호	조선시대	가장군 기장해안로 340 (기장읍, 연화산해광사)
석조관음보살좌상 石造觀音菩薩坐像	제119호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목조보살좌상 木造菩薩坐像	제120호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시왕도(十王圖)	제121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동계 화엄경변상도 경상 (銅契 華嚴經變相圖 經相)	제122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계사명 사리구좌(己銘 舍利具)	제123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전 경주 출토 승사리구 (傳 慶州 出土 僧舍利具)	제124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박기종 유물 일괄(朴基宗 遺物 一括)	제125호	대한제국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칠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七寶寺 木造觀音菩薩坐像)	제126호	조선시대	서구 해동로190번길 17(조장동)
황련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제127호	조선시대	
동래향교 명륜당(東萊鄉校 明倫堂)	제128호	조선시대	동래구 동대로 103(명륜동, 동래향교)
폭포사 묘법연화경(瀑布寺 妙法蓮華經)	제129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장산로 331-112(우동, 폭포사)
금천선원 묘법연화경(金泉禪院 妙法蓮華經)	제130호	조선시대	금정구 금샘로 27(두서동, 금천선원)
고불사 묘법연화경(古佛寺 妙法蓮華經)	제131호	조선시대	
백운사 묘법연화경 권1-3 (白雲寺 妙法蓮華經 卷1-3)	제132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운봉길 315 (현송동, 운봉산백운사)
백운사 묘법연화경 권4-7 (白雲寺 妙法蓮華經 卷4-7)	제133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운봉길 315 (현송동, 운봉산백운사)
진주성도(晉州城圖)	제134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가제부도(巨濟府圖)	제135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마흥 목처신반진사지석 (馬興 牧處新反陳氏誌石)	제136호	조선시대	금정구 부산대화로63번길 2 (장전동, 연씨백화점부산대점)
지치통감망목(資治通鑑綱目)	제137호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백련사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伯蓮寺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제138호	고려시대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8(송동, 백련사)
범어사 사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獅子庵 石造菩薩坐像)	제139호		금정구 상매길 26(청룡동, 사자암)
청동 옥(靑銅 玉鍔)	제140호	고려시대	
범어사 원효암 아미타삼존도 (梵魚寺 元曉庵 阿彌陀三尊圖)	제141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범어사)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제142호	조선시대	
칠성도(七星圖)	제143호	조선시대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44호	조선시대	
심광사 석조여래좌상(三光寺 石造如來坐像)	제145호	조선시대	부산진구 초읍천로43번길 77(초읍동)
신구공산성회제명지도(眞舊公山城會制名之圖)	제146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번길길, 궁대학과편의점
해동용궁사 금강반야바라밀경론 (海東龍宮寺 金剛般若波羅蜜經論)	제147호	조선시대	
해동용궁사 성가니본토강동자보살성취의매경 (海東龍宮寺 聖迦尼本토강동자菩薩成취의매經)	제148호	조선시대	
해동용궁사 목조여래좌상 (海東龍宮寺 木造如來坐像)	제150호	조선시대	
자비암 육경합본(慈悲庵 六經合部)	제151호	조선시대	
자비암 산림보충(慈悲庵 禪林寶誦)	제152호	조선시대	
기장 장관창(機將 將官廳)	제153호	조선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金銅觀音菩薩坐像	제157호	고려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목조지장보살좌상 木造地藏菩薩坐像	제158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목조여래좌상 木造如來坐像	제159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목조여래좌상 木造如來坐像	제160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61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 평화로 633번길 35번길관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분 야	소 재 지
수영농정놀이(水簫農慶놀이)	제2호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동)
동래학춤(東萊鶴춤)	제3호	조선시대	
동래지신밧기(東萊地神밧기)	제4호		
총림사제향(淸林祠祭享)	제5호		
부산농악(釜山農樂)	제6호		서구 새대신동 산2-3번지
다대포후리소리(多大浦후리소리)	제7호		사하구 다대동 468-6번지
가야금산조(伽倻琴山調)	제8호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분 야	소 재 지
부산영산재(釜山靈山齋)	제9호		사상구 백양대 3950번지 80-4(모래동)
동래고무(東萊鼓舞)	제10호		
구덕망개터다지기	제11호		서구 서대신동3가 623번지
주성정(鑄成亭)	제12호		금정구 부곡2동 235-5번지
사기정(沙器亭)	제13호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동래한랑춤(東萊閑良춤)	제14호		
불화정(佛畵亭)	제15호		구포2동 구포2동
아쟁산조(牙箏散調)	제16호		
화해정(和街亭)	제17호		
부산 고분도리길	제18호		
선화(禪畵)	제19호		
목조각정(木彫刻亭)	제20호		대저2동 신노전로 63
자연정(紙畵亭)	제21호		
수영지신밧기	제22호		
부산기장 오구곳	제23호		

3) 기념물(記念物)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연산동 고분군(蓮山洞 古墳群)	제2호	삼국시대	
만덕사지(萬德寺址)	제3호	고려시대	만덕1동 32-1번지 19필
배산성지(蓑山城址)	제4호		연제구 연산동 일원
동래읍성지(東萊邑城址)	제5호	조선시대	동래구 복천동 안락명료 칠산명정동 일대
구포왜성(龜浦倭城)	제6호	조선시대	북구 덕천1동 93번지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제7호	조선시대	동구 자성로 99 (범일동)
좌수영성지(左水營城址)	제8호	조선시대	수영구 미마동 광안동 일대
윤공단(尹公壇)	제9호	조선시대	사하구 대대1동 산24번지
정공단(鄭公壇)	제10호		동구 좌천1동 473-474번지
송공단(宋公壇)	제11호	조선시대	동래구 동래시절길 276복천동, 송곡단
조씨공단(趙義勇壇)	제12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동 362번지
임진동래의총(壬辰東萊義塚)	제13호	조선시대	동래구 우정촌로 157-67(동래동 11번지)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	제14호	조선시대	동래구 금강로124번지 23-17(온천동)
금정산성부설비(金井山城復設碑)	제15호	조선시대	금정구 장전2동 48번지
내주축성비(萊州築城碑)	제16호	조선시대	동래구 복천동 3-2
약조제립비(約條製立碑)	제17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천동 39번지)
척화비(斥和碑)	제18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천동 39번지)
부산진지성 서문 및 성곽 유적지(釜山鎭支城 西門 및 城郭 遺址)	제19호		동구 자성로 99(범일동)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정온공소의비(鄭溫公祠義碑)	제20호	조선시대	사하구 대대1동 산14번지
동래남문비(東萊南門碑)	제21호		남구 유엔평화로 63(천동 39번지)
물운대(雲臺臺)	제27호		사하구 대대1동 산14번지
신선대(仙臺臺)	제29호		남구 용당동 산185번지
이성교비(利涉橋碑)	제33호	조선시대	동래구 낙민동 86-2
천성진성(天城鎭城)	제34호	조선시대	강서구 천성동 1613, 1614, 1615
가덕도 척화비(加德島 斥和碑)	제35호		강서구 성북동 56-1번지
가덕도 동백군락(加德島 冬柏郡落)	제36호		강서구 가덕해안로 123(대항동)
기장 아이봉수대(機長 阿爾峯臺)	제38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유읍 효암리 산51-번지 외 2필
기장 향교(機長 鄕校)	제39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번길 35(교래)
기장읍성(機長 邑城)	제40호	고려시대	기장군 기장읍 서부, 동부, 대리리 일원
기장 척화비(機長 斥和碑)	제41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읍 대번리 608번지
노포동고분군(老圃洞古墳群)	제42호	삼국시대	금정구 노포동 142-1번지
생곡동 가달고분군(生谷洞 加達古墳群)	제43호		강서구 생곡동 산93번지 일원
범방동 패총(凡方洞 貝塚)	제44호		강서구 범방동 16-1번지 일원
해운대석각(海雲臺石刻)	제45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위1동(동백선대)
해운대동백선(海雲臺冬柏線)	제46호	시대미상	해운대구 위1동 783-1번지 일원
김해 죽도왜성(金海 竹島倭城)	제47호	조선시대	강서구 죽림동 787번지 일원
기장 죽성리와성(機長 竹城里倭城)	제48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산52-번지 일원
근대역사관(舊東洋拓殖株式會社釜山支店)	제49호	일제강점기	중구 대청로 104(대청동2가)
기장 죽성리해성(機長 竹城里海峯)	제50호		기장군 기장읍 두호2길 20(죽성리)
부산지방기상청(釜山地方氣象廳)	제51호	일제강점기	중구 북평산길32번길 5-11(대청동1가)
사저석교비(四處石橋碑)	제52호	조선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천동 39번지)
임시수도대통령관저(臨時首都大統領官邸)	제53호	일제강점기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부민동3가)
정과정유적지(鄭瓜亭舊址地)	제54호	고려시대	수영구 망미2동 17번지 일원
부산진일신여자학교(釜山鎭日新女學校)	제55호	일제강점기	동구 장동대로17번길 17(좌천동)
영도대교(影島大橋)	제56호		영도구 대교동
망산도 유주암(望山島 維舟巖)	제57호	삼국시대	송정동 산188일원 송정동 산188일원
기장 동부리회화나무(機長 東部里 槐花나무)	제58호		기장읍 동부리 210번지
기장 산성(機長山城)	제59호		기장읍 서부리대리리 천마면 안평리 일원
동래부 동헌(東萊府 東軒)	제60호	조선시대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수안동, 동래부 동헌 충신당)
동래향교(東萊鄕校)	제61호	조선시대	동래구 동래로 103(명륜동, 동래향교)
금정산 금생(金井山 金井)	제62호		금정구 범어사로 244(정릉동, 계명암)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유적(金谷洞 栗里 巖陰遺蹟)	제63호	석기시대	북구 금곡동 산 24

4) 민속자료(民俗資料)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황실족원장염수(皇親顯莊嚴圖)	제1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다대첩사영 갑주(多大僉使營 甲冑)	제2호	조선시대	동래구 충렬대로 345(안락동, 충렬사)
동래영 갑주(東萊營 甲冑)	제3호	조선시대	동래구 충렬대로 345(안락동, 충렬사)
동래영구군복(東萊營具軍服)	제4호	조선시대	동래구 충렬대로 345(안락동, 충렬사)
장안사연(長安寺簾)	제5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로 482(장안읍, 장안사)
장산 마고당·천제단(長山麻姑堂·天祭壇)	제6호	조선시대	우동 산48-1번지
박기종 관복 일괄 (朴琪宗 官服 一括)	제7호	대한제국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 (대연동,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박기종 대례복 일괄 (朴琪宗 大禮服 一括)	제8호	대한제국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 (대연동,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박기종 통상복 일괄 (朴琪宗 通常服 一括)	제9호	대한제국시대	남구 유엔평화로 63 (대연동,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5)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반송삼절사(盤松三節祠)	제1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신반송로182번길 2(반송동)
기장남산봉수대(機張南山烽燧臺)	제2호	고려시대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산52번지
범어사 청동은입사향완 (梵魚寺 靑銅銀入絲香 匱)	제3호	조선시대	
범어사 유채 대발도(光路 繪製 大鉢)	제4호	조선시대	
동치원년명범어사금고 (同治元年銘梵魚寺金鼓)	제5호	조선시대	
범어사 신방 축성패(梵魚寺 禪房 初聖牌)	제6호		
마애지장보살좌상(磨崖地藏菩薩坐像)	제7호	조선시대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58(연락동)
동래부사 유심 선장비 (東萊府使 柳 善琬碑)	제8호	조선시대	남구 대연동 시립박물관
해원정사팔상도(海苑精舍八相圖)	제9호	일제강점기	연제구 연산4동 1113-1번지
범어사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阿彌陀極樂會上圖)	제10호	조선시대	
범어사청풍당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淸風堂阿彌陀極樂會上圖)	제11호	조선시대	
범어사석가26보살도 (梵魚寺釋迦二十六菩薩圖)	제12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청룡동)
범어사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毘盧舍那佛會圖)	제13호	조선시대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칠성도(梵魚寺七星圖)	제14호	조선시대	
마하사영산회상도(摩訶寺靈山會上圖)	제15호	조선시대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연산동)
마하사응진전영산회상도 (摩訶寺應眞殿靈山會上圖)	제16호	조선시대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연산동)
마하사응진전16나한도 (摩訶寺應眞殿十六羅漢圖)	제17호	조선시대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연산동)
마하사대웅전석조석가여래삼존상 (摩訶寺大雄殿石造釋迦如來三尊像)	제18호	조선시대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연산동)
마하사응진전목조석가여래좌상 (摩訶寺應眞殿木造釋迦如來坐像)	제19호	조선시대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연산동)
마하사응진전석조나한상 (摩訶寺應眞殿石造羅漢像)	제20호	조선시대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연산동)
범어사목조삼장삼보지존패 (梵魚寺木造十方三寶慈尊牌)	제21호	조선시대	
범어사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木造釋迦如來位牌)	제22호	조선시대	
범어사목조오마니반메홍소통 (梵魚寺木造五마니반메홍疏筒)	제23호	조선시대	
범어사목제어피인통(梵魚寺木製魚皮印筒)	제24호	조선시대	
범어사연(梵魚寺簾)	제25호	조선시대	
범어사바라(梵魚寺바리)	제26호	조선시대	
선암사 괘불탱(仙巖寺 掛佛幀)	제27호	일제강점기	
변관식필영도교(卞寬植筆影島橋)	제28호	기타	서구 동대신동3가 1번지(동아대학교박물관)
안적사 지장시왕도(安寂寺 地藏十王圖)	제29호	일제강점기	기장군 내리길 461-16(기장읍, 안적사)
안적사 아미타극락회상도 (安寂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30호	조선시대	기장군 내리길 461-16(기장읍, 안적사)
대원사 독성도(大願寺 獨聖圖)	제31호	조선시대	
미인도(美人圖)	제32호	조선시대	서구 동대신동3가 1
연등사 영산회상도(燃燈寺 靈山會上圖)	제33호	일제강점기	동구 좌천동로 17-3(좌천동)
청량사 석가모니후불탱 (淸凉寺 釋迦牟尼後佛幀)	제34호	일제강점기	강서구 명지동 445
복천사 석가영산회상도 (福泉寺 釋迦靈山會上圖)	제35호	일제강점기	영도구 신선동3가 산 6
금장진관아터(金井鎭官衙址)	제36호	조선시대	금정구 금성동 280
선암사 청동목(仙巖寺 靑銅金鼓)	제37호	조선시대	
복천사 독성도 및 목장유물일괄 (福泉寺 獨聖圖 및 服藏遺物 一括)	제38호	조선시대	
복천사 현왕도 및 목장유물일괄 (福泉寺 現王圖 및 服藏遺物 一括)	제39호		영도구 신선동3가 산 6 복천사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동래부산도병(東萊釜山圖屏)	제40호		남구 비둘기78길 51(대연동, 부산박물관)
척판암 석조여래좌상 (擲板庵 石造如來坐像)	제41호	조선시대	기장군 하장안길 11-4(장안읍)
묘관음사 오여래탱(妙觀音寺 五如來幀)	제42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 1 묘관음사
운수사 아미타삼존도 (雲水寺 阿彌陀三尊圖)	제43호		사상구 모라동 5
국청사 금장산성승장인 (國淸寺 金井山城僧將印)	제44호		금정구 북문로 42 (금성동, 국청사)
범어사 자수수복문병풍 (梵魚寺 刺繡壽福文 屏風)	제45호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범어사)
묘관음사 불자(妙觀音寺 拂子)	제46호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 1
범어사 내원암석조보살좌상 (梵魚寺 內院庵 石造菩薩坐像)	제48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48(청룡동, 내원암)
복천사 석조석가여래 및 보살좌상 (福泉寺 石造釋迦如來 및 菩薩坐像)	제49호		영도구 신선동3가 6
관음정사 석존상(觀音精舍 石尊像)	제50호	조선시대	
교린수지(交隣須知)	제51호		부산진구 초읍동 산 51-1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제52호	조선시대	금정구 남산동 385
선암사 삼층석탑(仙巖寺 三層石塔)	제53호	고려시대	부산진구 부암동 628
쌍구장경호(雙口長頸壺)	제54호	삼국시대	
마문장경호(馬文長頸壺)	제55호	삼국시대	
전 이소신 초상(傳 李舜臣 肖像)	제56호	조선시대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梵魚寺 高麗三層石塔)	제57호	고려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범어사)
신흥사 치성광삼존도 (新興寺 熾盛光三尊圖)	제58호	조선시대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가야동)
용적사 독성도(龍積寺 獨聖圖)	제59호	대한제국시대	강서구 생목산대로39번길 24 (생목동) 용적사
관음사 묘법연화경(觀音寺 妙法蓮華經)	제60호	조선시대	
백련사 석조여래좌상 (白蓮寺 石造如來坐像)	제61호	대한제국시대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 (용호동, 백련사)
취정사 석조여래좌상 (篇井寺 石造如來坐像)	제62호	조선시대	기장군 상곡길 55(일광면, 원효사)
기정향교 풍화루(機張鄕校 風化樓)	제63호	조선시대	기장군 차성로417번길 35 (기장읍, 기정향교)
홍제사 보광암명 범종 (弘濟寺 寶光庵銘 梵鐘)	제64호	일제강점기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 (진포동, 홍제사)
동래향교 반회루(東萊鄕校 攀化樓)	제65호	조선시대	동래구 동래로 103(명륜동, 동래향교)
안심사 삼세불회도(安心寺 三世佛會圖)	제66호		북구 공해4길 98-10(화명동, 안심사)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원각사 현왕도(圓覺寺 現王圖)	제67호	조선시대	
승학사 석조여래좌상 (乘鶴寺 石造如來坐像)	제68호	조선시대	사상구 학림대로49번길 54-36 (학장동, 승학사)
금강사 묘법연화경(金剛寺 妙法蓮華經)	제69호	조선시대	동래구 우장춘로 21(온천동, 금강사)
구한은행 부산본부 (舊 韓國銀行 釜山本部)	제70호	기타	중구 대청로 112(대청동1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제71호	조선시대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장전동, 연씨백화점부산대점)
정선 필 청풍계지각 (鄭敼 筆 淸風溪池閣)	제72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광포도(廣浦圖)	제73호	조선시대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고불사 선종영가집(古佛寺 禪宗永嘉集)	제74호	조선시대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제75호	조선시대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용천리, 원효사)
백련사 고려사(白蓮寺 高麗史)	제76호		
범어사 사자암 칠성도 (梵魚寺 獅子庵 七星圖)	제77호	조선시대	금정구 상매길 26(청룡동, 사자암)
동림사 묘법연화경 권4-7 (東林寺 妙法蓮華經 卷四-七)	제80호	조선시대	
한중일관계료조(韓中日關係史料抄)	제82호	일제강점기	
대성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안해) (大成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제87호	조선시대	

참고 문헌

항도부산 제7호(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9)
부산시사 제1권(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의 내력(부산직할시, 1989)
경상좌수영성지 학술조사보고서(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남구지(부산광역시 남구, 1994)
수영 전통문화재(수영 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97)
부산지명총람 제6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수영의 민속과 문화(부산광역시 수영구, 2005)
부산의 문화재(부산광역시, 2006)
그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등 관련자료

- 이 책은 수영구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별도로 발췌하여
수영구 문화공보과에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

수영 역사문화 탐방

2000年 12月 31日 初版 發行

2016年 10月 30日 改訂版 10차發行

발 행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편 집 : 문화공보과 (문화예술담당)

051)610-4061, FAX. 610-4069

자 문 : 표용수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인 쇄 : 한글그라픽스

051)632-7842, FAX. 639-0305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6500-86100-37-0005

《비매품》

